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月)
本紙夕刊十二面

對伊制裁撤回爲해 國際聯盟緊急總會召集

伊國의에디오피아併合事實公式承認에는

各國代表依然히難色

【쥬네브二十八日發同盟】 聯盟總會는 聯盟五十餘個國 代表出席下에 마침내 三十日에 開會하고 對伊制裁撤回를 審議하기로 決定하엿다 開會同時에爲先 總會議長選擧를 執行할 豫定인데 各國代表者가 私的折衝을 行한結果 白耳義의 방질랑首相을 選擧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解釋된다 다음에 英佛兩國代表의 이니시에티브로 伊太利政府에對한 制裁撤回決意를 採擇할 豫定인데 伊太利政府의侵略行動을是認하고 에디오피아帝國倂合事實을 公式으로 承認하는데는 依然 各國代表에 難色이 不少함으로結局微溫的 侵略行動을 否定하는決議를 採擇하지안홀가觀測되다

對伊制裁撤回 波大使正式通告

【羅馬二十七日發同盟】羅馬駐劄波蘭大使위소스키 알프레드 博士는 二十七日午後 伊太利外務省에 챠노外相을訪問하고 本國政府의訓令에基하야 波蘭政府는 二十七日 閣議決定에依하야 對伊制裁撤回하는同時에 伊太利國과의間에 通商關係가 復活한다는宣言을 通告하엿다 右에關하야 챠노外相은 波蘭政府는制裁國中率先하야 制裁를 撤回한데對하야 謝意를表하엿다

英佛代表對策協議

【쥬네브二十八日發同盟】佛國代表 블름首相은 二十八日 午前 巴里로부터 自動車로 쥬네브에 到着하야 델보스外相과 安協한後 델보스外相과 同伴하야 聯盟新會館에 來着하야 러스토랑에서 英國代表 이든外相과 會見하고 晩餐을 함께하면서 總會의 議事手續及 歐洲政局의 危機打開策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開會前에 이르러 伊太利政府는 二十八日 아브놀事務總長에게 新覺書를 提示하엿는데 微妙한 政局의 動向에 徵하야 覺書內容은 開會直前까지 發表치안흘 模樣이다

다다넬스海峽通過問題 英、蘇、土間에諒解成立

【쥬네브二十八日發同盟】海峽條約改訂會議는 前後三日間에 亘하야 本會議後 聯盟理事會의開會로休會되엿는데 關係各國代表間의 私的折衝으로 軍艦의 海峽通過에 對하야 英、蘇、土三國間에 左와如히 諒解가 成立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土國政府는 聯盟理事會의規定又는 聯盟理事會에 依하야 承認된 規則을 履行할境遇에는 他國의 艦隊에對하야 海峽通過의 自由를 承認하다

一、蘇聯政府에는 발틱艦隊를補强함에必要하다고 認定할境遇 海峽을 經由하야 黑海艦隊를 出動식힐 權限을 附與한다

一、平時에잇서서는 土耳其政府에서 實施하는 海峽通過에關한 規則을 有效로함

以上의 試案에對하야 日伊兩國代表는 反對意見을 提示하나 英蘇土三國代表는 右方式에 準據한 假條約을 作成하고 爾餘의 調印國에 對하야 參加를 要請할方針이라고 解釋된다 그리고 海峽問題가 一段落을 짓는同時에 로카르노 條約國은 뿌랏셀에 會議를 開催하고 獨逸政府의 로카르노條約違反에對한 善後策에 對하야 再次檢討를 加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단치히『市獨立』되면 獨逸에合倂敢行

政局은混沌狀態陷入

聯盟高等辨務官、自由市首腦部와對策協議

【단치히二十七日發同盟】단치히自由市의 나치스首領 알베르트 푀르스타氏는 二十七日을 期하야 自由市의 獨立을 宣言하리라하는데 아직도 緊張된 自由市는 異常한 空氣에싸여잇다 聯盟高等辨務官레스터氏는 나치스의 獨立運動에 關하야 自由市首腦者와 對策을 協議中인데 同氏의人望은이미失墜되여잇는바獨立運動의 成否如何에 不拘하고同氏의 失脚은 免치못하리라고觀測되다 一部에서는 獨逸政府는自由市의獨立宣言과함께 더욱同市를 獨逸合倂을 敢行할것이라고 觀測되는바 自由市의政局은 바야흐로 混沌한情勢를 繼續하고잇다

陸士卒業式에 天皇陛下行幸

【東京電話同盟】陸軍士官學校 第四十八回 本科卒業式은 二十九日 天皇陛下의行幸을 仰하야 盛大히 擧行하얏다 이날 天皇陛下께서는 略式自動車鹵簿로 午前九時二十分 宮城 御出門 同三十分 文武百官 奉迎裡에 市谷臺上의 同校에 御着、校長 山田中將의 御先導로 一旦便殿에 入御、御少憩後 四手井侍從武官 御先導로 同校校庭練兵式場에 臨御、同校生徒의 閱兵分列을 臺覽하시고 卒業證書授與式場에 臨御하섯다가 式終了後 午前十一時五十分 同校御出門 宮城에 還御하섯다

電力海運航空은 三位一體의國策

遞相具體案作成에邁進

【東京電話同盟】遞信省에서는電力國營、海運助長、航空發達의三大重要政策을 提唱하야 各事務當局에서 着着 實現의具體案作成을 急히하고잇는데 此等國策은 事務上으로는 獨立分野가되여잇스나 現下內外情勢에 對應할 意圖에잇서서는 반드시 個個의 分派가되지안코 眞正으로 三位一體가 되는것입으로 爲先 電力國營法은 日本의資本主義經濟의 發達이 이미 公益事業인것을 認定하고 電氣事業의 營利性을 排擊한 消極的理由와 對外的理由로 軍需工業의合理的發展을 企圖하는것이다 이와 進行하야 國內一般產業의 海外進出基調가되는 海運國策의 一大根幹인 優秀船의 製造工業에는 電力供給의 最高低廉이 不可缺하고 他面 農村에 對한 電力의 普及徹底는 이것도 또한必然的 結論으로되여잇다 그리고 航空國策에 잇서서는 日滿航空連絡을 爲始하야 北滿南轉의 航空網擴充은 海運發展과 相俟하야 交通界의 根幹이되는 同時에 一朝有事時에는 有力資源의 開發其他에 重大한 役割을하는것으로 賴母木遞相은 此等見地에서 現下緊要不可缺한것이라하야 三位一體의 大計劃實現에 邁進할 決意이다

在滿兵力充實은 別個로考慮 重要國策과陸軍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國策決定閣議에서 各省으로부터提出될 重要國策의內容을 聽取하는데끄치고 陸軍省案으로 各省에 具體案提示는 行치안흘方針인데 各省으로부터 提案된 具體案에對하여는 贊否를 保留하고 爲先 이에對하야 周密한檢討審議를遂하야 그國策이될만한 實質을 究明한後 이에 實質을 表하고 其實現에 協力할 方針을 가지고 잇는模樣이다 그리고 庶政一新의 實質에 쓸려 諸種의國策은 机上에 氾濫된 現狀인데 此等全部 一時에 採用하기는 그實現이 거이 不可能함으로

一、現下國內의 客觀的情勢에照應하야 時弊를 匡救함에 가장 適應한것

一、右에 該當하되 이를 全部 羅列하기는 財政關係에 잇서 困難을 感할 虞가 잇슴으로서 緩急程度를 考慮할 必要가잇다

는等의 原則을樹立하고 國策決定에 臨하기로되엿다 그리고 陸軍이 가장 그實現을 要望하는것은 國防의充實 即 在滿兵力의充實 航空防空機材施設의 整備 機械化部隊의 擴充增大等인데 그實現에는 獨自의立場에서 考慮하야 閣議에서 實現을 要望할것은

一、民間航空의統一과 그急速한發展

一、燃料國策樹立

一、軍需工業의 能率增進과 그擴充

一、國民衛生保健에必要한施設

一、農村의經濟更生

一、中小商工業의助長

等으로 日本의對外發展을爲하야 產業貿易振興策等에對하여도 機會를보아 漸次國策을 決定하야 閣議에 그實現을 要望하기로되여잇다

藏相의抱懷하는 歲入計畫의輪廓

閣議는相當紛糾未免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來月十日 重要國策審議에 關한豫算閣議에 提出할 財源關係에對하고 目下 研究를 急히하고잇는데 馬場藏相은 同閣議에서明年度豫算財源의 捻出에 關하야 그輪廓을갓추게된

一、稅制整理

一、專賣의擴張

一、特別會計調整

一、公債發行의減少

等에對하야 大體의 豫想을 示하고 各省의 重要經費와를 對照하야 右財源에依하야 歲出計畫을 樹立할 範圍를 決定할意向인 模樣이다 그리고 右閣議結果 明年度豫算에잇서 重要經費의大體가 判明되면 此를 一般經費와 合하야 八月十日까지에 大藏省主計局에 豫算概算書를 提出케하야 閣議決定方針에則하야 査定을 進行할터이다 同時에 稅制整理其他의 歲入計畫에 잇서도 豫算審議의 進行에伴하야 마친내 具體的計數를 算出할時期에到達할터로 稅制整理其他財政計畫의內容은 今後 漸次 其全貌를 나타내이리라고觀測되다 그리고 閣議席上에서 藏相은 今日까지의 調査에基하야 增稅、其他歲入增收計畫의目標로한 金額에對하야도 어느程度의 豫想額을示하리라고 觀測되는데

一、地方稅의整理에關하여는 內務省과 如何히하야 意見의一致點을 發見할것이냐

一、外地의增稅、外地特別會計에對하여는 拓務省及 外地監督官廳과 如何히 妥協할것이냐

一、鐵道、遞信兩特別會計로부터 一般會計에 豫算金을 繰入하는데對하야 鐵道、遞信兩省이 如何한 點까지 讓步할는지

等의 折衝結果에依하야 歲入豫定計上에도 變動을 生할뿐더러 一方 歲出에잇서서는 國防費를 中心으로한 各省의要求額은 자못尨大하다고 傳함으로 這間의協調를 達成하기까지에는相當한 曲折을 要하리라고 觀測되는바 閣議席上에잇서 論議도相當히紛糾될것은 免치못하리라고觀測되다

獨伊航空連絡協定

【伯林二十八日發同盟】航空次官 밀히將軍을 首班으로한 伊太利空軍使節은 獨逸政府와의 航空連絡協定을 締結하고 二十八日飛行機로 羅馬에 向하야 歸還途上에올랏다

時論 단치히自由市의獨立運動

◇ 단치히自由市의 나치스黨首領이 단치히의 獨立을 宣言한다는 報道는 또다시 聯盟當局에 難題를 提出하는것으로써 注目되다、周知하는바와가티 단치히 自由市는 舊獨領西푸로시아의 一部인것이 베르사이유條約에 依하야 獨逸에서分割하야 國際聯盟保護下의 自由市를 만든것이다 海港이 업는 波蘭이 此를 唯一한 海港으로써 利用하도록 波蘭과 同一稅關經濟區로 만드러노앗다。그러나 住民의 絕對多數가 獨逸人일뿐만아니라 地理的으로도 東푸로시아와 獨本土사이에 끼워잇는 단치히市는 나치스가政權을잡은後 聯盟의 保護를버서나 獨立行動으로 獨本土에 合倂할氣勢가濃厚케되엿다

◇ 단치히自由市의 政治機構는 國際聯盟 高等辨務官이 聯盟을 代表하야 駐在하고잇고、行政機關으로는 元老院 立法機關으로는 國民議會가잇는바、國民議會는、議員三分의 二以上의 贊成으로써 憲法變革을 할수잇게되여잇다。그럼으로數年前來、단치히의나치스는、國民議會에 三分의二以上의 議席을 占有하야、合法的으로 憲法을 變革하야 聯盟의 保護를떠나 獨立을宣言한後、獨本國에 合倂할計畫으로써、猛烈한活動을 하여왓다。이리하야 昨年四月 總選擧에는 當然히 國民議會의 三分의 二以上의議席을 占領할줄로미덧든것인데、結果는 그러치못하엿다。即 단치히國民議會의議員數는 七十二名인데 나치스는 絕對多數로 四十三의 議席을 獲得하엿스나 三分의二以上되는데는 아즉六名이 모자람으로 失敗되엿든것이다。그럼으로 總選擧는 每四年임으로、合法的으로 단치히를 獨立식힘에는 三年을 기다려야할터임으로 나치스는 暴力으로라도獨立을宣言하려고只今機會를엿보고잇는모양이다

國策的見地에서 立案할重要事業

總督府에서具體案準備

政府의 國策案과 併行하야 總督府에서는 國策的見地에서立案을 要할 重要事業이 山積하여잇슴으로 今井田政務總監 林財務局長을 中心으로 各局에 命하야 着着그具體案作成에 努力하고 잇는데 朝鮮으로서는 知事會議에서도 躍進朝鮮에 相應한 여러가지 重要意見이 提出되엿슴으로 이것도 參酌하야 朝鮮獨自의立場에서 中央의 國策에 合致할諸事業遂行을 指目하고計畫을樹立할方針인데 政府의 國策案과 朝鮮 獨自의 案이 緊密한 關係를 가질 境遇에는 今井田政務總監이 渡東하야 折衝에 當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總督府가 國策的見地에서明年度豫算編成에 際하야 先議할 諸事業은 左와如하다

一、緬羊增殖의 擴充十個年、全朝鮮에 五十萬頭維持를 目標로 經費百萬圓을 支出함

二、釜山、馬山兩港의 完成七個年繼續事業으로 釜山一千五百萬圓、馬山五百萬圓으로 支出함

三、航空施設의擴充 日本海橫斷裏日本北朝鮮連絡及 京城、北朝鮮連絡의 完成朝鮮海峽橫斷大型飛行機의 完成에 要하야 百六十萬圓을計上함

四、發電調査 今年度에 繼續할 發電調査를 擴充하야鴨綠江 其他 朝鮮內主要河川의 發電調査에 進出함

五、國境警察官의 增員守備隊撤退에伴하는 國境警備를 充實히하고 百萬圓으로써 約一千人의警察官을增員함

六、鐵鑛開發과 製鐵助成茂山鐵鑛開發에對하야 積極的補助를 與하야 朝鮮內에 製鐵所新設을 斡旋하야 鐵山과 製鐵所間의運輸海陸의運輸에便宜를供與함

七、軍需工業의助成 產業經濟調査會의 意見을徵하야 具體案을樹立하고 더욱中小商工業의助成에까지 注力함

八、馬政計畫 十五個年計畫三萬頭의 產馬增殖을圖함

九、造林計畫 三十一個年計畫으로 五千二百圓의經費로써 大規模의全朝鮮的造林을行함

中央軍西南雜軍討伐

【廣東二十八日發同盟】貴州省主席으로부터 追出된 王家烈의殘黨土著軍은 突然 西南側에 加擔하야 劉守先은 貴州抗日軍副總指揮에 曹天泉 周芳仁、毛廣雄等은各其各司令에就任하야 兩廣軍과 一致行動을 取하겟다는旨의通電을 二十七日에 發하엿다 따라 貴州綏靖主任代理劉興氏는 麾下中央軍을 出動식혀 討伐을 開始하엿는데 西南軍의 雜色軍買收는 着着成功하얏고 福建、江西兩省에 駐屯하는 中央軍도 相當히 動搖되고잇다고한다

警察部長會議 二十九日부터三日間

各道警察部長會議第一日을 二十九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宇垣總督臨場 田中警務局長이 就任以來最初의 本格的統裁下에 總督府關係各局課長을爲始하야 過般人事大異動에依하야 九道部長이 大更迭되엿는만큼 新陳容의 感이잇다 (本府) 岩城忠南 宮田全北 山本全南 下飯坂慶北 兵頭慶南 八木黃海 井坂平南 古川平北 瀨戶江原 山下咸南 筒井咸北 各部長과 昨日日本內地警察部長會議에 出席하야 歸任한 中野忠北部長을 加하야 全朝鮮 十三道警察部長 全部出席하고 傍聽席에는 持永憲兵司令官、佐枝軍參謀長以下朝鮮外에서 (內務省) 加藤警保局 事務官 宮崎同理事官 (拓務省) 赤木朝鮮部管理局警務課長 (關東局) 御影池警務課長 (滿洲國) 大島民政部警務司警務科長、植木安東省公署警務廳長、伊藤間島省警務廳長 外警務局在外派遣員等出席으로緊張裡에 開會되야 劈頭宇垣總督은 最近內外諸情勢및 半島躍進에 處하야 社會不安、生活不安의 一掃에任할 警察精神의 發揚과 使命에言及하야 約四十分間重要訓示를 與하고 다음笠井高等法院檢事長은 司法警察의 使命發揮와近日 實施될 司法監察制度其他事項을 包含하야 訓示를한後、田中警務局長은 二、二六事件後의 半島는 微動도안코 大槪 平靜을 保有하야 治安의 確立을 보게된것은 各位및 部下職員의 獻身的努力의 結果에 依한것으로 感謝한다 그러나 輓近朝鮮의 產業、社會、敎育各般事象의 向上發展에 따라 더욱 複雜多岐를 다하야 朝鮮警察官의 使命은 더욱 重大性을 가지게되엿다는 旨를 冒頭하야 不穩思想의根絕 外事警察의擴充、一般民心의啓蒙誘掖、結核豫防等各般에警察事務에關하야 訓示를하고 正午에休憩、午後一時再開、警務局指示注意事項의 說明에 드러갓다 會議는 七月一日까지 三日間繼行하야 指示注意事項、管內狀況報告、協議、他局希望事項等에對하야 協議할터이다

宇垣總督訓示

玆에 道警察部長을 會同하고親히 各位의 壯容에 接하야 所懷의 一端을 述할機會를 엇게 된것은 余의欣幸으로 여이는바이다

朝鮮內의 治安狀況을 槪觀하면 各位의 施措가 適宜하야疆內는 大槪靜謐을 保하고 民心은 安定에赴하고잇다 特히 過般不祥事件或은 北朝鮮國境附近에서 이러나는 日蘇軍隊의 衝突과 如한 重大事態가 續發함에도 不拘하고 治安上 些少한 動搖도업섯든것은 實로 安心하는바이다 그러나 더욱 이를仔細히 觀察하면 共產主義運動과 如한것은 近時漸次萎弱되는 傾向으로보인다하나 裡面에잇서陰險惡辣한 運動은 아직도 其자최를 끈치안코 內外의 諸狀勢를 巧妙히 利用하야 都市工場或은 農村等 各方面에對하야間斷업시 其魔手를뻐처 靑少年의思想을 攪亂하고 或은施政의運行을妨害하고 或은 地方振興運動의進展을 阻害하는等 事例는반드시 적지안타 그리고 民族主義運動에잇서서는 急進過激한 策謀는 顯著히 減少되엿스나 아직絕無라고는 하기어려우니 將來相當히 注意할 必要가잇다고 思한다 國外에잇서 不逞徒輩의一派는 微妙한 國際關係의動向에 乘하야 反滿抗日又는 東洋赤化를企圖하고 或은 接壤地帶에 策動하야 때로는 朝鮮內警備의 間隙을엿보아 潛入을企圖하고 또軍事施設乃至 國家總動員遂行上 重要事項의探知에 暗躍하는者도不少하야 朝鮮內治安保持에 對하여는 決코樂觀을 不許하는바가잇다 各位는 時局의 重大性과 內外의 諸情勢를 深甚考察하고 此際 一層部下警察官을 督勵하야 적어도 表面的平穩에 安心하고 緊張을缺하거나 取締上 間隙을生하는일이업도록 特히 注意하기를바란다

刊行物、映畵蓄音盤의發賣는 逐年顯著하야 半島文化의 向上發展에 寄與하는비가 不少한것은勿論이나 其內容과 影響으로仔細히 觀察하면 아즉 往往半島의治安風敎上 看過하기困難한것이잇는것은遺憾이다 各位는 그指導取締上 더욱一段 研究와 努力을다하야 적어도 不穩矯激에涉하야 함부로 人心을刺戟惑亂하야 累를 統治에 及함과如한일이잇슬時는 斷乎 그排除掃滅에 努力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保健衛生에關하여는 逐年一般社會의關心이깁허가 顯著히 改善機運을生하고잇다 癩及麻藥中毒豫防과如한것이 稀有의良好한成績을 擧한것은實로 欣快不堪하는바이다 그러나 衛生諸般의現狀에徵하면 將來더욱 改善을要할幾多의 緊要한 施設이 尙存하여잇다 特히 結核의蔓延은實로憂慮할 狀態로 諸種의疾病中國民의福祉를 阻害하고 國家의損失을 招來함이 結核과如히 甚한것은업스나 이에對하야 아직施設의볼만한것이 업는것은 遺憾이다 그리고 本病의豫防은特히 社會의認識과 自覺과를 俟하야 비로소 其實効를 收得할수 잇슴으로 各位는 잘本病豫防에 關한 知識의 普及啓發을圖하야써 官民協力施設의 實現에 努力하기를 特히 切望하는바이다

昭和十一年六月二十九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日兵四名被擊 二名은卽死 蘇聯邦서使嗾?

【哈爾濱二十七日發同盟】當地某機關着情報에 依하면 二十六日午前七時頃 綏芬河北兵營衛兵所南方五十米地點에서 公用外出中이던 ○○兵將校 當番四名은 突然 ○○○에게 狙擊되어 그中 二名은 胸部貫通銃傷을 바더 卽死하엿다 詳細는 不明이나 蘇聯側의 使嗾한匪賊이라고 보인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二十九日 午後六時倭城台官邸에 警察部長會議出席者를 招待 晩餐會를開催

▲羅集消氏(駐京中國總領事館副領事)今番北海道函館領事로轉任人事次本社來訪

▲金永鍵氏(佛領印度支那東洋考古學硏究所員)歸國人事次本社來訪

八面鋒

富者에게 革命的重稅를 課하자고 佛共產黨이提案

◇ 增稅의重壓은 歐羅巴도 一般인가。

◇ 단치히自由市가 獨立宣言을햇다고 聯盟이 또걱정。

◇ 南米諸國이 理由通告도업시脫退를 續行하는이판에 聯盟自體의 存立이 問題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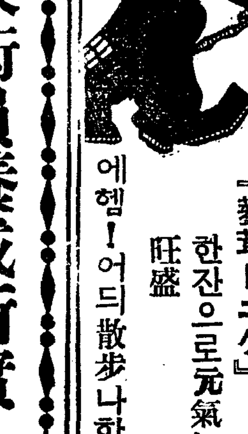
◇ 庶政一新政策이 너무만히쏘다저나와서 政府、省部가 모다 頭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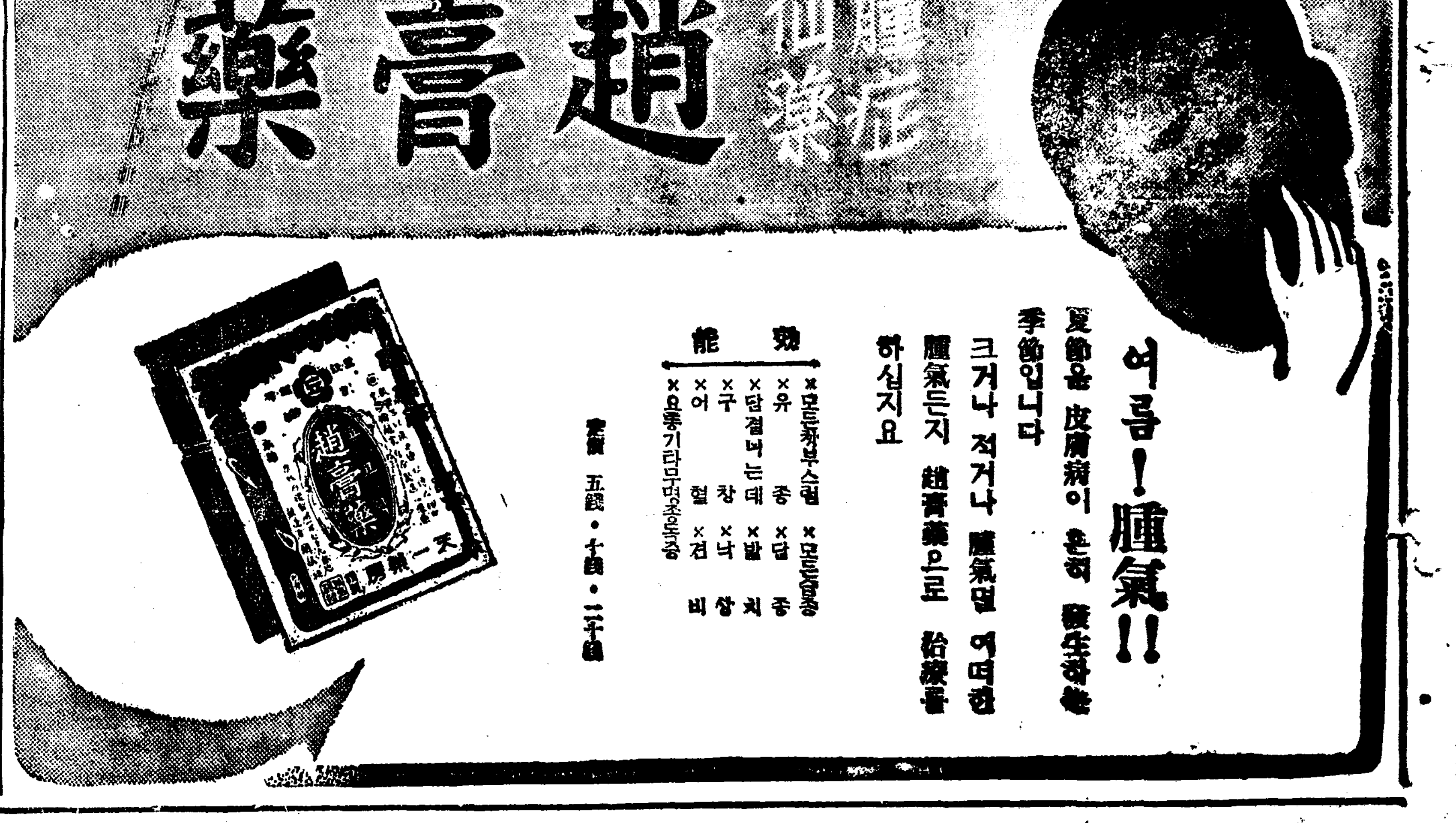
◇ 十三大臣의 功名다툼보다는內閣全體의 責任이 무겁지아니할가

取消

每日申報昭和十年十月二十九日附第八面에揭載한『惡德養母에게蹂躪된處女』란題下에云云한記事는事實無根이기에玆에取消함

昭和十一年六月廿六日 每日申報社南海支局





◎朝鮮ラヂオ技術員養成所實習生製品ラヂオ實價販賣◎

◎ラヂオ의技術을배우려면 — 全朝鮮에唯一機關인

◎電氣ラヂオ業開業하려면 — 朝鮮ラヂオ技術員養成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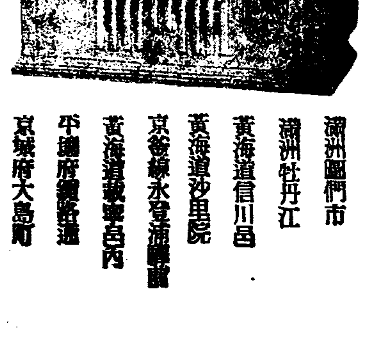
◎品質이優良하고 低廉한 ラヂオ를사시려면 — 技術이優秀한先生의嚴査下에서 仕組한實習生의製品을

現下朝鮮에 電氣ラヂオ業者는 日日增加하는現狀에잇다 그러나電氣ラヂオ業者가 適當한技術을배운이가稀少하야 더욱發展을보지못하는것은事實이다 弊店에서는이것을遺憾으로生覺하와 ラヂオ技術普及을시키고저 今般三百坪餘에建物을新築하고 業務를一層擴張하고 同時에 ラヂオ技術員養成所를設立하고 目下三十餘學生이 授業中實習生의 第一回作品인 ラヂオ를實費로提供하겟사오며 實習生의製作한ラヂオ는여러先生들의 嚴密한監査下에 全鮮各地帶에適當하게 製作하엿사와 絕大로內地에서 仕組한ラヂオ보다 超越한品이오며 一次枉臨하시와試聽하신後多數下命하여주심을期待하나이다

昭和十一年六月日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三

朝鮮ラヂオ技術員養成所



販賣期間十日間

即賣所

京城蓬萊町一丁目	光云商會總本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光云鍾路支店
仁川內里	光云仁川支店
滿洲圖們市	光云圖們支店
滿洲牡丹江	光云牡丹江支店
黃海道信川邑	光云西鮮支店
黃海道沙里院	光云沙里院支店
京義線永登浦驛前	光云永登浦支店
黃海道載寧邑內	光云載寧出張所
平壤府鐘路通	三五電機商會
京城府大島町	明新ラヂオ商會

西大門 刑務所移轉問題 各方面에要望擡頭
都市體面上 兒童訓育上 滋味업다고
難關은結局莫大한移轉費問題

수만평의 광대한면적을 가진 서대문형무소가 현재 현저정(峴底町)한복판 시가지에잇다는것은 서부일대의 발전상으로는 물론 경성시가의 전체문제로 보아도 그대로 둘수업스나 하로밧비어 데로던지 이전하지 안흐면안되겟다는것은 전부터 각방면의주의를 끌어오든비인데 최근에와서 그긔운이 더욱 농후하여어떠방법으로던지 부근주민들의중심으로당국에 요망하게될모양이다 최초그곳에 형무소가 설때에는 인가도 극히희소하야 교외지나 만찬가지이엇스나 칠팔년래로 점점늘어나가는인구가 근자에는 그형정에달하야 형무소를 중심으로 비인틈이업시 인가가들어서잇다 물론형무소가 먼저그땅을 점령하엿든관계가 잇다고는하나 원체가 그일대는 시가지로 주택이 들어서리라는것은 전부터 짐작할수잇섯고 또현재로보아도 완전한주택지대나 상업지대로 가장 중요한곳이 되여잇서서 조국에는 형무소자체의 립장으로보아도 도저히 그대로 그곳에 영구히잇슬수업는것이 사실이다 즉일반주민으로보아도 그가튼 광대한면적에 형무소라는 크다란건물을두고아침저녁으로대하게되다는것은 일상생활상 불쾌한 감을주며 특히아동교육상 더참을수업는일이고 또 형무소자체의 행형정책(行刑政策)상립장으로 보아도 인가근처에잇서서 시가의 오가잡음이 다들리다는것은 수인들의 감정을 심각히 상하게 할뿐으로 그때문에 수인들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묘한것이어서 형무소당국으로서도 이전의 필요는 누기고잇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옴기다면 수백만원이라는 거대한 비용이 들것임으로 경비관계상 당분간은 어떠케든지하지못할상태에잇는모양인데 그곳주민들이며 유지들의 의견으로서는 당장그전부는 옴기지못한다 하더래도 교외의 적당한곳을택하여가지고 변변 일부분식이라도 옴겨나가도록 하여주기를 바란다는것이다 그러고 이전을 한대도 대경성의 시가지계획안의 발표를 보게되는이때에 이전준비를 하는것이·더옥유리하리라는것이다

복심법원에 공소하엿든 장회건(張會健)등 세명에관한 공소심제일회공판은 오는칠월륙일 그법원형사부법정에서 적(荻)재판장주심미테 열리기로되엿다 당일출정할피고는 다음세명인데다른사건 일본인피고 곡곡개차(谷谷開次)는 공소하엿다가 취하하고 방금복역중이라한다
▲張會健(三○)(一審懲役十年) ▲朴世榮(三○)(同十年) ▲宋成寬(三○)(同七年)

蕩子最後의發惡! 高壓線感電自殺
돈못쓰게한다고아비에게 "죽엄의抗議"

【沙里院】 세상에 자살사건이 하도 만호니만치 그원인도 각양각색임에따라 그방법과 수단도 여러가지로 발단(?)되고 잇다 이제 황해도봉산군(黃海道鳳山郡)하에서 발생된 첨단적자살사건이 잇섯스니 그원인과 방법을 드러보면 봉산군사인면국사리(鳳山郡舍人面國祀里)에 사는 김달현(金達鉉)의 차남 관필(寬弼)(二○)은 원래 성질이불량하야 방탕한짓을 함부루하야 면해동안 계속하야 가산도 상당이 만히탕진하여오든중 지금으로부터 약삼개월전에 그아버지 김달현의 명의로 잇는 토지를 몰래 파라가지고 도망하라는것을 자긔부친이 미리알고 돈을빼아서 마음대로 되지못함을 비관하야오다가 지난二十八일오전 일밤 열시경에 계동역(桂洞驛)부근에서 서선전기회사전주(西鮮電氣會社電柱)에 올라가 륙만륙천볼트나 되는고압전선(六萬六千볼트高壓氣線)에 매어달려 전신이타서 떠러저죽엇다 한다

경을바든 숙친제이태평양로동조합(第二太勞)사건피고 삼십사명중 일심판결에 불복하고 경성

列車、自動車 側面衝突
運轉手、助手兩名重傷
廿八日慶北線玉佐洞의慘事

이십팔일 오전십일시삼십분경 조철경북선(朝鐵慶北線)아천-옥산(牙川-玉山)량역간 경북김천군어해면 옥좌동 (金泉郡禦海面玉佐洞)〃칠도길진길〃에서 진행중의 화물열차와 자동차-경북구백사십구호-가 측면으로충돌한 참사가 생겻는데 자동차는 차체가 분쇄되엇스며 조수일명은 중상 운전수는 빈사의 중상을 입엇고 손해는 삼천오백원가량이라한다

軌道車慘死事件 責任者三名送局
廿九日過失致死罪名으로

경성궤도차참사사건의 사고책임자인 전긔객차 차장 리달우(李達雨)(二一)화물차 운전수 김운선(金雲仙)(二七)등 차장 함양준(咸陽俊)(二二)의 세명은 그동안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 엄중취조를 계속중 일단락을 지엇슴으로 이십구일 아침열시 업무상과실상해급치사 (業務上過失傷害及致死)의 죄명으로 일건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 (京城地方法院檢事局)으로 이송(移送)하엿다 그리고 이사고의 즉접책임자인 객차운전수 최경식(崔慶植)(二○)은 이개월의 중상을입어 입원중이므로 그완치를 기다려 취조하기로되엿다

짐짝미테 치어죽은馬夫

이십구일아침 여덟시이십분쯤되여 본정서원이 순찰중 조선신궁(朝鮮神宮)뒷길가에서 고민하고잇는 구루마꾼이잇서 곳대학병원에입원식혀 응급치료를다하엿스나 외쪽젓가슴에 바른다박상으로 내출혈이 만허 드디여 죽엇다한다 그는 시내삼판통(三坂通)사십번지 마차모리하는 박용옥(朴龍玉)(四○)이라하는데 그날아침 새벽에 짐을가득실고 전긔지점을 몰고가든도중 비탈에 다다르자 비로 말미암아 길이 낫분데다가 짐짝이목어워서 자유로 이동못하고 끌고가다가 그만 구루마가 악나려가는바람에 구루마에 다친모양이라한다

李弼宰死刑確定

강도、살인、시체유기、사긔등죄명으로 일이심에서 모다 사형판결을받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엿든 충남론산군 두마면부남리(論山郡豆磨面夫南里)리필재(李弼宰)(三一)에 관한 상고심언도공판은 이십구일 고등법원에서 히두(宮頭)재판장주심 산택(山澤)검사관여미테 열리여 재판장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이 내리엿다 사건내용은 피고리필재가 소화팔년사월이십사일 그의집에 유명을 고치러와잇든 황해도연백군(延白郡)리세준(李世俊)이가 전자로양코저 경남남해(南海)방면으로간을때남애리 리세준의 어머니장와내(張臥內)가 리세준에게 보내주기로되어부모의 신여원을 빼아슬생각으로 그를 현산역(釜山驛)까지 데려다 주고 가리가다가 도중에서 길가에잇는 폭포(瀑布)미테떠다미러 빠저죽게한후 범행을 감추기위하야 시체를 끄내다가 바위틈에 너코그위에 돌을만히싸허논다음 그에게서 빼아슨도장을리용하야 피해자리세준의 어머니장와내에게 편지하야 돈을사긔한것이라한다

第二太勞事件 控訴公判日決定

지난소화구년사월이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죄명으로 징역최고십년으로부터 최하일년반까지의판

骸骨挾雜事件
七月二日로公判日決定

지난십칠일 룡산경찰서로부터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국되리태원공동묘지 해골협잡사건피고 리홍순(李鴻淳)(四九) 박영욱(朴永郁)(三九)김순구(金舜九)등 세명은 그간 삼(森)검사의 취조를받고잇든바 리홍순 박영욱 두명만 독직죄로 긔소되여 경성지방법원공판에 부치기로되여 제일회공판을 오는칠월이일 그법원형사부법정에서 염전(鹽田)판사주심미테 열리기로되엿다

※※艶笑속에숨은盜心!※※ 손님의주머니에서大金窃取※※※

자연홍등(紫烟紅燈)아래서 흘러나오는 녀자의우슴에는 흔히독긔가차잇는것이오 그웃음뒤에는 가시(荊棘)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듯한범죄-시내창신정(昌信町)륙백칠십팔번지 김룡연(金龍蓮)의 내외주점에잇는 신막동(申莫童)(二○) 서정숙(徐貞淑)(二○)윤간난(尹干蘭)(二○)이란 세녀자들은 이십구일 새벽두시가지나 들어온 교남정(橋南町) 이백칠번지 잡화상 민창근(閔昌根)(二六)과 그의친구 창신정(昌信町)오백팔십삼번지의 심구호 남상옥(南相玉)(二六)에게 가진 추파와 아양을 떨어가며술을취하게하고는 전과민의 외편호주머니에 너허둔 백팔십원이 들어잇는 수첩을 훔처내여 이것을발견한 두사람은 깜작놀나 소관파출소에 호소를하야 웃주점을수색한결과 어느새에 변소벽판장틀에다 감추어둔것을 발견하엿스며 이밧게도 다른지갑들이잇는것으로보아 이가한녀자들은 상습적으로 이런범행을하고잇든것이라고하야 동대문서에서는엄중한 취조를계속하고잇다

今般降雨도 解渴程度
三南은아직降雨中—仁川觀測所發表

【仁川】 거다리고 기다리든끄테 나리다는 비는마침내나리어 삼남일대에는흡족하다고 할수업스나 다소해갈은 되엿다는데인천관측소에서이십구일현재각지총조사하건대▲京城一六미리 ▲仁川一二미리 ▲全州四四미리 ▲木浦一九미리 ▲元山五미리 ▲江陵四二미리 ▲大邱三八미리 ▲釜山五○미리 라는데 중부지방은 현재흐리고 잇스나 삼남지방은 아직도 비가나리고 잇다 이에 전조선 기압배치를 보면 황해(黃海) 중부에잇든 칠백오십미리의저기압은 발서조선을통과하고 말엇스나 조선해협(朝鮮海峽)과 일본내지추전(秋田)현 근방에 불연속선(不連續線)이춤현까닭에 비는오날로서 끄치고 일기는청명하야지리라한다

海州에또怪盜!
材木商에侵入金窃取
千六百圓大金가지고潛跡

【海州支局電話】요지음 해주(海州)서부일대에는 다섯번이나 상인강도(傷人强盜)가 나타나서 인심이 흉흉하든 끄테 수일전에 경찰서에서 겨우 범인을 체포하게되엿는데 이십팔일오전두시부터 오전여섯시까저의 사이에 해주여전 협성재목상회 (協成材木商會) 에 사무원김모(金某)등 세명이 잠이 기피든 틈을타서 도적한명이 드러가서 사무실서류장안에 드러잇는 돈궤한개를 훔처가버렷다 그돈궤안에는 현금 팔백이십원과 해주금융조합 칠백구십일원짜리 소절수(小切手)한장이 드러잇섯는데 범인은 그돈궤를 그상회창고로 가지고가서 독끼로써 우으로깨트리다가 잘깨트러지지안흐므로 다시 밋바닥을 따려깨트려서 그안에 드러잇는돈과 소절수를 훔처가지고 어데로인지 도망해버렷모양이라한다

그돈궤에는 피가무더잇스므로 해주경찰서에서는 범인의손금을때서 방금 수사하는중이다 범인이 그상회창고에 드러가서 돈궤를 부서가지고 간것을 보아서 그상회의 사정을 잘아는자의 소위인듯하다한다

纛島水源池에 取水管一個增設
◇……京城府의 水道不足對策

경성부의 수도는 큰열가티비가오던가 날이 흐리면 수도의 사용량이 즐어서 그리절박한상태에 잇지안흐나 다소 날이가물고 더워지면 수도의 부족을 늑기는 경성부로서는 금년에이르러 수도사용량이 붓첫늘어나가면서 인천(仁川)의 수도사용량도 늘어서 로량진(鷺梁津)수원지의 공급조차 종래대로 밧기힘든상태에 이르러 극히 곤난한 사정에 잇는데 수도과에서는 금년만은 어떠케해서든지 대개 그대로 참어나갈듯하나광장리(廣壯里)수원지가 새로되기전에는 명년부터 이변간 크게 곤난하리라하야 그대책을연구중、위선 뚝섬(纛島)수원지에 취수관(取水管)을하나 더 만들기로하고 방금 조사에 착수하엿다 즉현재는 취수관이 두개에 송수량은 사만오천돈이든것을 취수관 하나를 더증설하야 어느정도까지 증수를 더해보자는것이나 역서 고식책임은 물론이다

妓生집에좀도적

최근시내에잇는 기생집에도난사건이 자조발생되여 오던중 이십칠일밤새벽두시경에 시내서린정(瑞麟町)일백일번지 한성권번(漢城券番)기생 리해동(李海東)(二二)의집에 괴생이 노름에서 돌아와서 잠이든잠을자고잇는틈을타서 창문을교묘히빼고 침입하야 사십원짜리금비녀를 훔처가는데 방금소관종로서사법계에서는 범인을수색중이다

東光醫院 X光線新設 無料로奉仕

府內貫鐵町(貫鐵町)大廣橋(大廣橋)부근에잇는 東光醫院(東光醫院)에서는개업이래 일반환자에게 실비로 친절히 봉사하여오든중이엇섯는데 이번에마대한경비를드려 「엑쓰광선과」(X光線科)를 새로설치하고 그신설기념으로무료로 엑쓰광선을이용하여 건강진단을하여주기로되엇는데 일반폐결핵환자와 불건강한사람에게는다시업는 조흔기회가될것이다(광고)
貫鐵町六番地·大廣橋附近 東光醫院 電話(光)四〇番

義烈團員一名 嚴戒裡에押來
卅日仁川入港할平安丸으로

【仁川】 삼십일오전팔시에 상해(上海)로부터 인천으로 입항하는평안환(平安丸)으로 의열단원리청산(李靑山)(一名 李泰善)(三○)을압래하리라는데 이소식을전한 인천서에서는 삼엄한경계리에대기중이라한다 그는평북(平北)출생으로 남경(南京)일대에서 다년활약하든중 지난오월십오일 상해령사관 경찰부에 체포되야엿는데 취조를 마친후 그의본적지 평북경찰부로 압송되는것이라한다

市內에僞造紙幣가盛行

근일 경성시내 특히남촌(南村)방면에 십원짜리 위조지폐가 횡행하고잇다는데 십일전에는 남대문통(南大門通)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본점 출납계에서 한장을 발견한것을 비롯하야 수일전에도 명치정(明治町)주식취인소(株式取引所)에서 도한장을 발견하엿다는데 이보고를 바든 소관 본정서에서는 혹은 지폐위조단의 소위나아닌가하야 그서에서는 엄중 수사중이라한다

南極探險隊 行方不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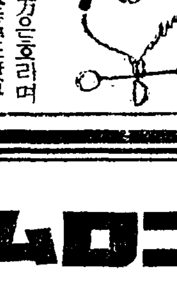
【워싱톤二十七日發同盟】「아메리카」연안 경비사령부에서는 이십칠일 판해상 순라선(巡邏船)에대하여 "링컨·엘스워-드"의 남극탐험대를 태운 "바시일행의 "와이아트·애프"호의 행방수사를 의뢰햇다 그배는 엘홍전 "뉴-욕"을떠나서 "오드로"로 향한채 그후소식이 끈허지고 말엇기때문이라한다

"빠·완다"女給 飮毒自殺(未遂)

이십구일 오전여덟시경에 시내견지정(堅志町)사십사번지에 사는빠-"완다"의녀급 정옥자(鄭玉子)(二二)가 만흔분량의칼모친을먹고 자살을 도모하야 혼수상태에빠저 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락원정(樂園町)지성주(池盛周)의원에 입원식혀급히 치료를하고 잇는데 겨우생명은 붓잡을모양이라고한다 자살하려던 원인인즉 전기 옥자가 삼년전에 현재의남편과 동거하게되여 아들까지 나코지내오던중 남편은 최근직업도업시잇스면서 이날새벽에녀자가 늣게온것을 나물하여서 이를비관하야 그와가티한것이라고한다

美人計써서 土地를詐欺

어수룩한 시골청년을 꾀여가지고 서울로데리고와서 미인계(美人計)를써서 토지를 사취해먹은 악당들ㅡ경기도련천군적성면(漣川郡積城面)사는 김과섭(金果燮)(二○)이라는 우둔한 소지주(小地主)를 약두달전에 서울의 악당두명이차저가서 서울가서자본금오천원으로 포목상을 경영하면 라익이 막대하다고 꾀여가지고 이십여두락의 토지문서와 위임장을어든후 전과 김과섭을데리고 상경하야 동대문밖어떤 내외주점으로 안내하야 서울새악시와 하로밤 꿈풀구게한후 그대로 토지문서를 가지고도망하여 버렷는데 이사실을 종로서에서 탐지하고 방금공범자한명은 붓잡엇스나 주범을붓잡지 못하야 피해자도 함께 보호해노코 엄중수탐중이다



天氣予報

豫報 今夜京城地方은흐리며 明日도갓다·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二度四
同 最低 一九度一
今朝 最低 一八度三
今日 正午 二二度五

運動競技

女子卓球리그戰 京城女高優勝
同德奮戰惜敗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一回京城女子中等校卓球리-그第二日은廿八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公立女子實業學校講堂에서 繼續擧行된바 斯界의 常勝校인 同德과淑明及京城女高普等三팀은·모다七戰六勝一敗의 同率로되여 다시順位決定戰을 行하엿는데 同德이 淑明을、女高가 同德을 女高가 淑明을 이겨서 京城女高軍이優勝하엿스며 同德팀은第二位、淑明팀은 第三位를 占한바 이날의戰績과順位는다음과갓다

◇順位決定戰

【同德】勝3…2【淑明】
許完順0……3任昌淳
柳順男3……0王點順
姜彭玉3……0崔貞洵
李孝根2……3李己相
李喜順3……1朴長順

【同德】1…3勝【女高】
許完順2……3尹懸良
柳順男2……3李福求
姜彭玉3……0李仁順
李孝根1……3金春姫
李喜順 不戰 閔蓮植

【女高】勝3…2【淑明】
尹懸良2……3任昌淳
李福求3……0崔貞洵
閔蓮植1……3王點順
李春姫3……1李己相
李仁順3……0朴長順

◇寫眞은 卓球聯盟戰에 優勝한 京城女高選軍

◇各校順位表

	戰	勝	敗	比較
1、京城女高	8	7	1	〇、八七五
2、同德女高	8	6	2	〇、七五〇
3、淑明女高	8	5	3	〇、六二五
4、女子商業	7	4	3	〇、五七一
5、第一高女	7	3	4	〇、四二八
6、第二高女	7	2	5	〇、二八六
7、貞信學校	7	0	7	〇、〇〇〇
8、京城女實	7	0	7	〇、〇〇〇

東京三五陸硏會 地方巡廻코취

東京留學生들로 組織된 三五陸硏會에서는 이번 夏期放學을 利用하야 朝鮮各地方을 巡廻하며 對抗戰과 코-취를 行할터이라는데 이들을 마저 試合 또는 指導밧기를 願하는 團體에서는七月十五日까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二二〇의十四號 李之炯氏에게로 通知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委員代表 金恩培(早大)▲庶務部 姜五俊(明大)▲會計部 黃約翰(法大)▲外交部 洪永熹(日體)▲硏究部 李之炯(明大)▲通信部 徐明錫(早大)▲會員 金寶粥(法大) 南昇龍(明大) 金周興(日體) 張燮(明大) 金在根(日體) 曹圭奉 車駿淑(日體) 洪俊明(日體) 朴希尙(日體) 柳錫興(日體) 金鳳秀(明大) 馬會善(早大)

高麗卓聯理事會

高麗卓球聯盟의 第四回在京理事會는 明卅日午後八時부터 鐘路靑年會社交室에서 開催하고 다음과가튼事項을討議할터이라한다
1、團體統制의件
2、技術委員詮衡의件
3、聯盟戰準備의件
4、其他事項

朝鐵陸上軍勝捷

第二回奉天對朝鐵對抗陸上競技大會는 廿八日午後一時四十分부터 降雨中에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朝鐵福田君은 不良한 『컨디숀』에도 百米에十一秒五의大會新記錄을지엇는데 總得點六十四點半으로 快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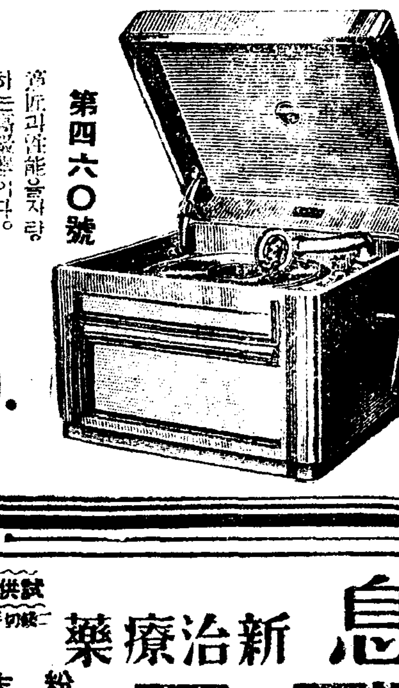
東京留學生 卓球軍來訪

在東京留學生卓球俱樂部에서는 이번夏期休暇를利用하야 鄕土를 訪問할터이라는데 一行의日程과 陣容은 다음과갓다
▲釜山七月十四日▲大邱十五日▲京城十六日、十七日▲開城十八日、十九日▲平壤廿一日▲鎭南浦廿五日
▲主將 尹廣彬(崇商出身)明大卓球主將
▲選手 金炳雲(光高出身)東鶴高商主將 金永煥(光高出身)高岡高商主將 金雲夏(平高出身)東京農大卓球部選手 李景憲(海州高普出身)同上 朴在昌(崇商出身)法大卓球部選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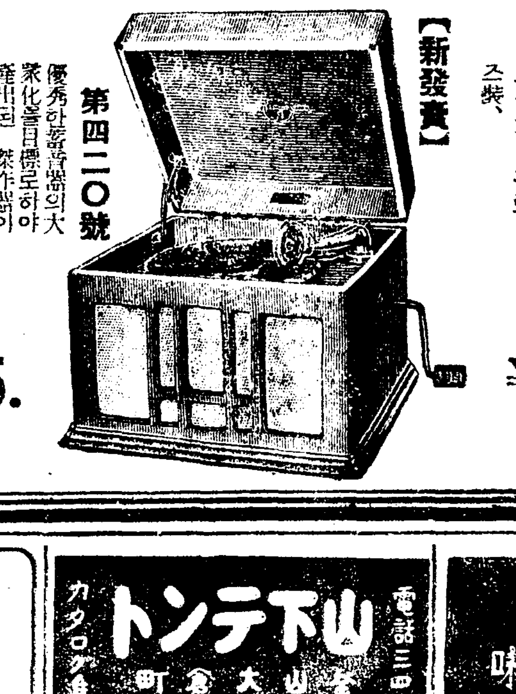
崇商籠球部 朝滿各地에遠征

【平壤】平壤府內慶上里崇仁商業學校籠球 이 全日本中等學校籠球大會에서 破竹之勢로 諸强을 擊破하고 籠球朝鮮의意氣를 謳歌한것은 最近의痛快事이지만同軍은 이번夏期休暇를 利用하여 朝鮮、滿洲等十五個都市에 遠征軍을 派遣하기로되여 目下準備에 奔忙中이다
遠征軍은 全崇商軍과 崇商軍의 兩部門으로 朝鮮日報本社의 後援으로 各地에轉戰하기로되엿다 全崇商 崇商兩籠球團의遠征할都市는 다음과가티 決定되엇는데 詳細는 追後發表키로되엿다
◇崇商籠球遠征地
▲京城▲元山▲咸興▲城津▲鏡城▲淸津▲龍井村▲吉林▲哈爾濱▲新京▲四平街▲奉天▲安東▲新義州▲宜川 以上十五個都市

豊麗한音質과堅牢한機構를자랑하는 코롬비아蓄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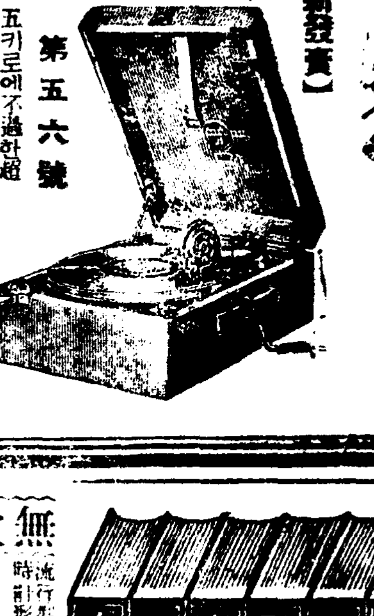


【新發賣】 第四六〇號 高匠과性能을자랑하는高級器이다。二重모-타-가裝備되야잇습니다。 ¥60.



【新發賣】 第四二〇號 優秀한蓄音器의大衆化를目標로하야 産出된 傑作器이다。精選한日本製長音道에依하야再生音의美音은斯界의驚異의的! ¥35.

第二一四號 姉妹器 第二一二號 第二一三號 二重모-타-가裝備된超豪華級포-타블이다。外裝은豪華한실버-、푸른즈、레자-·구로-즈裝、 ¥55.



【新發賣】 第五六號 五키로에不過한超輕量器이다。더욱히모든諸裝置가完備된、十吋盤八枚를너흘수잇는홈-타-附。 ¥25.

포-타블의 存在理由가 確然합니다 씨-즌이왓습니다 今年은어듸로?

뽀-너스 買物에 무엇보다蓄音器를第一番으로推薦합니다。
콜럼비아製品에는總히瑞典스프링鋼모-타-가裝備
「이外에各種型錄을 特約店에서보시고試驗하시라 五十圓부터五百五十圓까지」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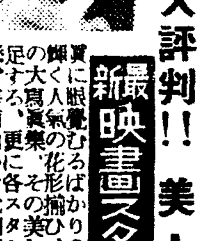
不老長壽 強精細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一円十錢

喘息 新治療藥 コデス(고데스) 粉末 錠劑 시롭부
適應症 喘息·氣管支炎·가다루·頭痛·가다루·氣管支炎·感冒·肺炎
合資會社 笹岡製藥所 大阪市北區中崎町二四 東京京橋人船町三丁目
試供品送呈 (切手封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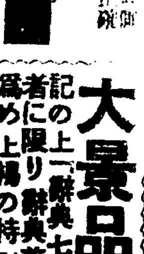
山下テント 大倉町 カタログ進呈 電話三四番

冷房設備完全 점심에 於階上大食堂 洋定食一圓 시작하엿사오니 만히試食하심을
京城府旭町入口(旭ビル) 味の店食館 ぼあ·ぐらん 電話本局(2)一四八八 一八八四 京城のおいしい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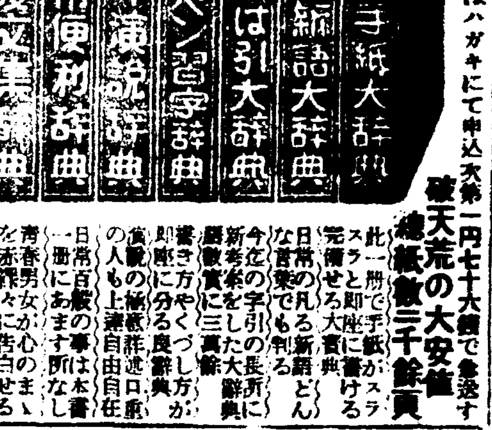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物凄い大評判!! 美人寫眞集
最新映畫スター大寫眞集
眞に眼醒むるばかりの美麗大寫眞! 映畫界に輝く人氣の花形揃ひ、新聞二頁大の豪華絢爛たる美しさ、誰方も一見歡喜雀躍する、更に各スターの年齡、住所、所屬、經歷、身長、等面白い身元調べ付。新發賣記念として二錢切手六枚送ればスグ送る。
申込所 東京、麴町九段三ノ二 靑年時代社

無代進呈

實物 縮寫 流行型腕時計

大景品付き七册辭典大亂賣
七册で只の壹圓卅錢に投賣
左の大辭典七册殘本處分の爲七册同時に注文者に限り只の一圓三十錢に投賣す 外に送料廿五錢
●代金引換注文はハガキにて申込次第一円七十六錢で急送す
破天荒の大安値 總紙數三千餘頁



最新手紙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三体ペン習字辭典 書式模範辭典 日常便利辭典 戀愛文集辭典
大景品 朝鮮日報愛讀者と明記の上一辭典七册組に御注文の爲め上揚の特別大景品一個づつ無代進呈す。此の景品は書籍と同封包装し郵税附します。
發行所 東京·麴町·九段二丁目 振替東京九五四九九 積文堂書店

若草映画劇場 電本(2)二五四〇番
二十七日初日七月二日迄新作封切 待望の豪華プロ
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名匠キング·ヴイダー監督不朽の傑作
薔薇はなぜ紅い
名花マーガレット·サラヴアン、ウオーター·コンノリー主演南北戰爭時代の或る農場の持主一家をバツクに、移り行く世相と變り行く人人の心境をキング·ヴイダー一流の氣取らないジツクリとした形式のうちに語る戰ひの抒情詩
P·C·L映畫撮影所擴張記念作品 池寬原作…矢倉茂雄監督 オール·トーキー
處女花園
堤眞佐子·中野英治·山縣直代他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わが胸は高鳴る
フランク·タツトル監督ビング·クロスビー、キテイ·カーライル
◆晝夜三回入替ナシ大五〇學三〇
次週封切P·C·L兄いもうと コロムビア映畫オペラハツ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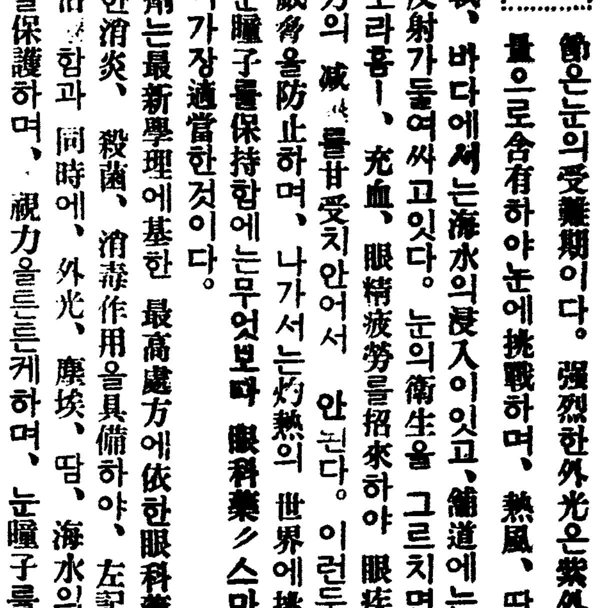
浪花館
六月二十五日より六月三十日まで 三回興行 入場料金 四十錢 六十錢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人生のお荷物		二·三〇	七·〇〇
◀僕の春	十二·〇〇	三·四五	八·一八
◀米國の機密室	一二·五七	四·四二	九·一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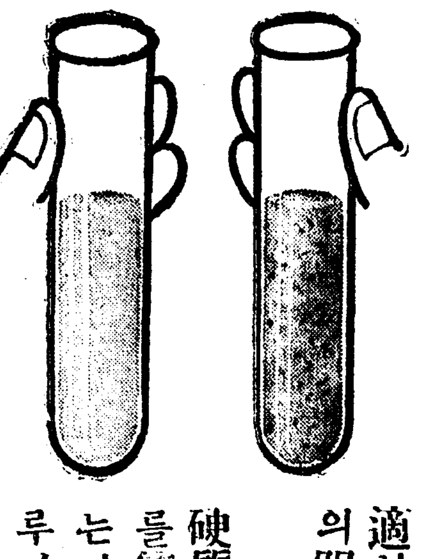
夏の眼の衛生

夏節은눈의受難期이다。强烈한外光은紫外線을多量으로含有하야눈에挑戰하며、熱風、땀、塵埃의刺戟、바다에서는海水의浸入이잇고、舖道에는甚한日光의反射가둘여싸고잇다。눈의衛生을 그르치면곳結膜炎、도라홈ー、充血、眼精疲勞를招來하야 眼疾의苦痛과視力의減退를甘受치안어서 안된다。이런두려운여름의威脅을防止하며、나가서는灼熱의 世界에挑躍할强靭한눈瞳子를保持함에는무엇보다 眼科藥〃스마일〃의常用이가장適當한것이다。

即本劑는最新學理에基한 最高處方에依한眼科藥이며、優秀한消炎、殺菌、消毒作用을具備하야、左記眼疾諸症을治療함과 同時에、外光、塵埃、땀、海水의刺戟에서눈을保護하며、視力을튼튼케하며、눈瞳子를明朗化하는合理的藥效를갖고이슴으로써이다。 여름의健康生活의必需品으로써 누구든지愛用하시거를推奬한다。



眼藥의優劣에關係잇는 藥液의澄明度에對하야



〃스마일〃은眼科領域에잇서서最新의處方과配劑로되여스며、그優秀한殺菌、收斂、液炎의各作用은흔히結膜炎、潰瘍性眼瞼緣炎(진무른눈)角膜炎、角膜實質炎(삼눈)도라홈ー、充血、淚膿症、眼性疲勞、其他霞眼、疲勞眼等眼疾의治療와豫防에快適히奏効함과同時에、視力을튼튼케하며、눈瞳子의明朗化에奏効하는獨自的藥効를갖고잇다。

그뿐아니라그容器는藥液의變化를防止할수잇는硬質硝子、口栓은藥液等에溶解되지안는굿타벨크를使用하야잇다。따라서普通硝子의容器를使用하는거와는判異하야。長時日을두는동안硝子中의아루카리가遊離하야、藥液의變化를招來하든지、또는軟質고무、혹은고루크等의口栓을使用하는것과가티粗雜物(몬지)가混入될염려는絕對로업다。

即스마일의藥液은恒常淸澄그대로의澄明度를保護、長時日을經過하더라도조곰도變化업시、製造時그대로의新鮮한奏効를나타낸다。

明快한眼科治療劑

スマイル (스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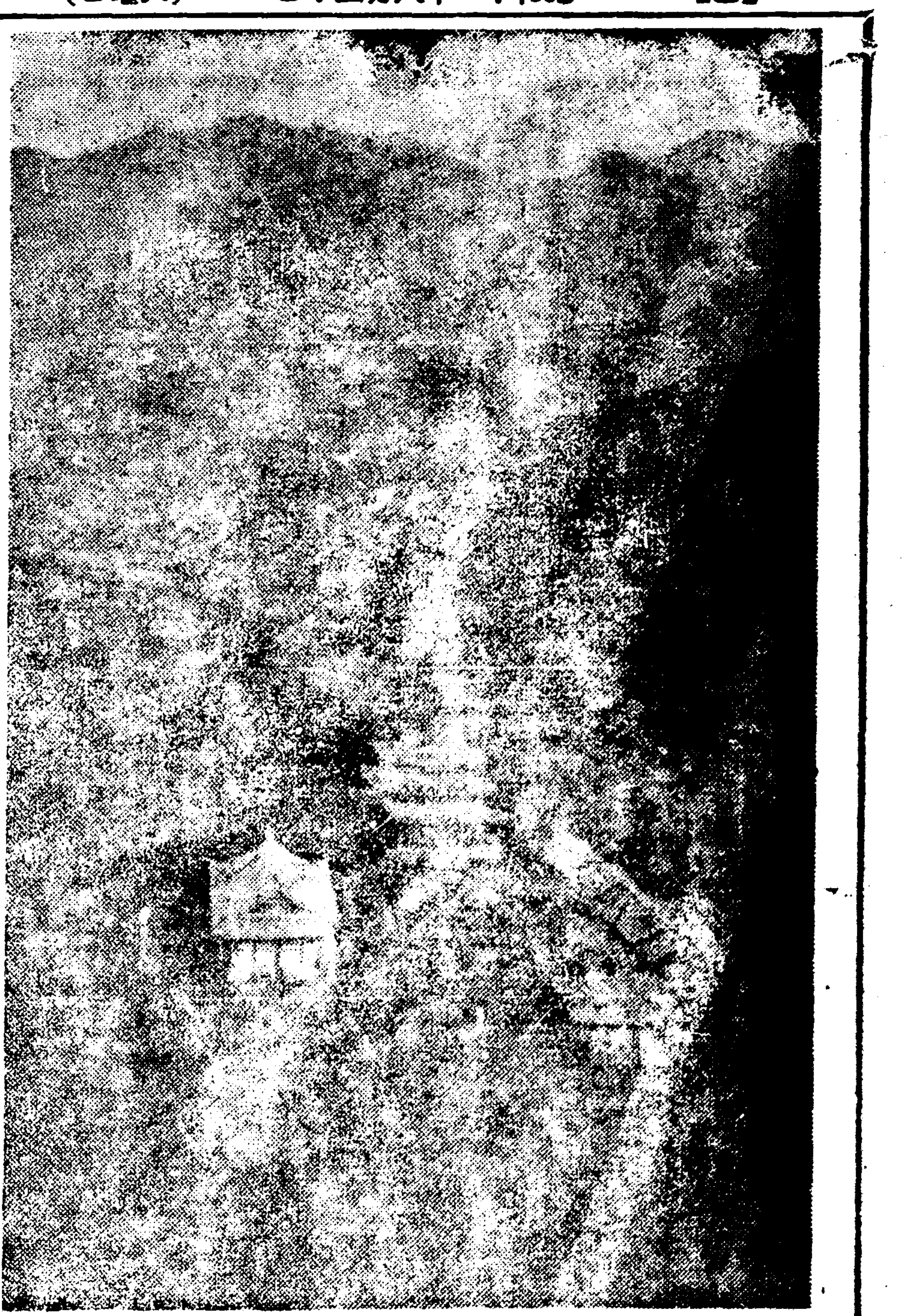
中村眼科院長 醫學博士 中村辰之助先生
醫學博士 仁藤 隆作先生
御推奬

點眼하는方法!

銀色뚜겅을떼고、容器를垂直으로눈에닷지안케쥐고、末端을손끗으로輕하게두들기면、一滴!一滴!爽快하게點眼이된다。點眼할時容器를눈에다이면눈꼽이瓶으로드러가온즉特히注意하라!

(定價) 二十五錢・四十五錢・全國藥店百貨店藥品部에이슴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大阪



종소리
—金堤 金山寺 風景—

家庭

이묘리 모른다면 숙수도 낫이업다

과학이말하는그음식의본맛
맛은 온도에달린것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조타고 모든 것을 차게 하는 것으로써 능사를 삼습니다. 그래서 냉장고(冷藏庫)쯤 사노흐신 댁에서는 이 것도 냉장고 저 것도 냉장고 넘어 냉장고를 허프게 쓰시고 또 냉장고나마 업는 댁에서는 어름을 깨트려 넛는다 어름물에 시키어 낸다 별별 군색한 짓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이란 온도(溫度)로도 관계가 잇는 것이랍니다. 더퍼노코 차게 해서는 음식맛을 다 버리고 맙니다. 화채라든지 찬국이라든지 그런것이야 얼마든지 차게 해서 시원하게 먹을수 잇지 안습니까? 다른 음식까지 모도 차게 할맛이 어대 잇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처음 입에 너허서는 그저 찰뿐 아모맛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입속에서 녹아야 만 비로소 단맛을 깨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한즉 단맛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요구하는까닭이올씨다. 비단 단맛만이 아니라 짠맛, 신맛, 매운맛 쓴맛, 모든맛이 다가티 어느정도의 온도를 요구케됩니다. 그와동시 어떤 맛은 얼마마한 온도에서 가장맛나고 또 어떤 맛은 얼마만한 온도에서 가장 맛나듯이 다각각 가장맛나는 온도가 틀립니다. 맛은 온도를 요구한다고 더퍼노코 뜨겁게만 하야서도 음식맛이 썩 조흘수는 업는 노릇입니다. 음식맛과온도의 이러한 관계를 혹드르신 일이 잇습니까? 참고삼아 한번 엿주어 드릴까요?

물론 사람이 먹는 음식이요 사람이 맛보는 맛이니까 그온도는 사람의 체온(體溫)을 표준하는수밧게 업습니다. 사람의 보통체온은 삼십륙칠도니까 즉 그 표준온도가 삼십륙칠도로 되는 폭입니다

(一)신맛은 체온보담 십도쯤 나저야 제일잘들어나게 됩니다.

(二)단맛은 체온과 가터야 제일 잘 들어나게 됩니다

(三)짠맛도 단맛과 가티체온과가터야 합니다.

(四)쓴맛은 체온보담 오히려 이삼도 내지 오륙도노파야 제일 잘 들어납니다

(五)매운맛은 체온보담 배가 넘어 만허야제일 맛이 잘 들어 납니다.

라이스카레를 시근뒤 잡수면 맛이 어떠습니까? 라이스카레는 매운만큼 더울씌록 조흔 것이 아니겟습니까?

×

그러니까 제일 나즌 온도를 요구하는 것이 신맛이요 제일 노픈 온도를 요구하는 것이 매운맛입니다 그 원측에 의하야 면찬국은 조금 차도 조흐나 고치장찌개는 폭폭 끄를때가 조흡니다 그뿐이 아니라 비루라든지 푸렌소다가튼 것도 무렵 대고 차게 할것이 아닙니다. 그역시 맛도 잇고 향긔도 잇는 것인즉 그 맛과 향긔를 맛보기 위하야는 온도를 필요로 하는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저 이십도내외가 좃습니다. 정히 더차게 하려면 십오륙도까지도 무방합니다. 하여튼 식욕이 주는 녀름에는 음식맛도 중요하지 안할수업습니다. 무조건 차게 하는 주의는 녀름의 영양을 위하야도 주의할법입니다.

시집간누나편지

창우야 이번방학에는
우리집에와서 여름을
나보렴。시골에는 서
울보다 떡 자미잇는것
이만타。너 조화하는
옥수수、우리 뒷겨레
떡 만히 심어노앗지。
그리구 배낭구가 둘、
능금낭구두 셋이나 된
다。네가 오면 다따주
마。 큰누이

(京城사람 유영애)

動物愛談 ②

색기를찾는 어머니고래 (二)

崔秉和
崔桂淳 畵

『정말 그래요. 그저 한길이나 훨훨뛰든데요。』아들은 그제서야 신이나서 말하얏습니다.

『그래!』하고 아버지는 이러낫습니다。혹시 큰물고기가 밀물에 싸혀서 드려온것으로만생각하고 잡어서 팔것을 벌서에산지고 잇섯습니다。

아버지와아들은 급히 언덕위로 뛰여나왓습니다。

『어듸잇니?』아버지는 바다위를바라보고나서 아들에게 이러케 무럿습니다。바다는 다른때나 조금도 다름업시 휘정휘정 일리우는 푸른물외에는 아모것도업섯습니다。

『응! 이거바랑 금방 보앗는데……』아들은 풀이죽어서 주춤하고 서잇섯습니다。

『이게무슨말이냐? 너는 어제밤 꿈꾼이야기를 한것이아니냐?』

『꿈이아녜요。나만봣나요。복남이、선돌이 순룡이도 보앗는데요。』하고 아들이 정말이라는것을 옥이고잇슬그때 뒤 솔밧사이로 선돌이와 선돌이아버지가 급히 뛰여왓습니다。

『엇더케됏니』

『업서젓단다。─이상스럽지안호냐?우리 정녕보앗지。우리아버지는 꿈이야기를한다고 곳이듯지 안흐시는구나。』

『꿈이아녜요。저히들이 똑똑히 보앗는데요。』하고 선돌이가변명하야 주면서 바다를 내려다보앗습니다。그때 선돌이가 큰소리로 부르지젓습니다。

『나왓다 나왓다。저기저거보세요。』

이소리를듯고 일제히 바다를보니깐 따는 물결사히로 불끈소사잇는것이 보엿습니다。

그것고 검고길고 큰물건이엿습니다。네사람은 아모말도하지안코 한참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잇다가 아버지는 별안간 배속에서 억지로 나오는 음성으로

『고래다 고래다 고래가틀림업다!』

하고 말하니깐 선돌이아버지도

『자네말이 마젓네。정녕고래세!』

『네 고래예요?』두아들들도일제히 이러케말하면서 서로얼골을 마주처다보고 잇섯습니다。

고래─잇다금 이야기로만듯고잇다가 어제 눈아페 실지로 고래를 보게되니깐 어두아이들은 귀신이나 독갑이 이상으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갓게되엿습니다。원래이곳은 만(灣)의 어구가 좁으므로 고래와가튼 큰 김생이 드려오는일이 거위 업섯습니다。

『고래! 고래!』

『고래가 드러왓다!』

이소문을 금방 온동리에 좌퍼지엿습니다。그리고 이집저집할것업시 늙은이 어린아이들이 모다들 바다가로 모여왓습니다

『한마리가아니다──두마리다』

『한마리는 색기고래다。』

어부들의 얼골에는 금방 활기가도랏습니다。

『이놈을 잡기만하면 큰돈이생긴다。돈덩어리가 뛰여드려왓는데。』하고 어부들은 고래잡을궁론이 분분하엿는데 고래잡는도구가 아모것도업스므로 돗대를 빼족하게깍거서 그끄테다가 굵은 밧줄을 매엿습니다。쬐챙이(銛)대신이엇습니다。그리고 고래가 도망가지못하게 만어구에다가 재몽을 잔뜩 싸노핫습니다。

혈관종(血管腫)

問 출생후 이개월쯤되여서입살우에 붉은것이 좁쌀알만하게 낫기에 그냥두엇드니 지금은차차커집니다 그붉은 점이업서지는 약이 잇습니까 또는점점퍼지지 안는약은 업나이까 좀자세히 알라여주시옵소서 (市內 一讀者)

答 혈관종인가 생각합니다만은 진찰아니하고는 확언할수업습니다 약으로는 엽시할수업겟고 반드시 수술에의하야 적출하여야됩니다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成鎭)

連載小說

옥심이【十一】

金廷漢 作
安夕影 畵

이러케해서 날이 가고 달이 바뀌는 동안에, 천수는 마츰내 양재물까지 먹엇스나, 불행히죽지도 안코 가을철이 되엿다。

그러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거들것업는 천수의 집에는 가을이 와도 아무깁븜도 업섯다。아니, 이미 보리양식도 다 떠러진뒤라, 도로혀 삼순구식의 잔인한 운명이 그들을 향하야 아가리를 벌렷다。──허서방은 자고새면 남의일을 다니고、마누라는 방안에서만 연방 고양이처럼 웅얼거렷다。그리고 두 딸년은 철도 안든것들이 벌서 다라지게 나무를 해온다。밥을 짓는다해서 집안 일을 마터보고、수복이는 만고 천덕군이가되여서옷도 헐벗든더 어쩌다가 끼니때를 넘기면 의례히 밥도 못 어더먹고、주린 쥐새끼처럼 할금할금 집안 사람의 눈치만엿본다。

그런데 어느날、천만 뜻밧게 옥심이가 조고만 봇똥이 한개를 싸서들고 다시 돌아왓다。천수의 집에 잇슬때보다 훨신 얼골이 통통하고、옷골도 맑숙하엿다。

그러나 옥심이는 봇똥이를 마당에 내던지기가 밥브게 주린 즘생가티 수복이를 와락 끄러안으며 미친것처럼 엉엉 울기 시작햇다。막혓든 홍수가 둑을 차고 쏘다 지듯이、그의 오래동안 눌려온 『어미의사랑』이 불시에 터진구멍을 차즌것이다。물론 그에게는 발서 겨테 누가잇든지、웃든지 알양곳 업다。다만 수복의 금왕선가튼 낫바닥에자긔의 눈물에 저즌 얼굴을 맛대고 부빌뿐이다。

수복이도 오래 떠러젓든 어머니라、오즉 반가웟겟스랴마는 그의 울악스런 태도에 무슨영문인지를 모르고 다만 어머니가 하는대로만 잇슬뿐이다。

『수복아!』

옥심이는 꿈이나 아닌듯이、울면서도 아들의 얼골을 보고 또본다。그리고 눈물겨운 소리로、

『죄만흔 어미를 용서해주겟는야?』

그러나 수복이는 그말귀는 알아들을수업고、비로소 자긔도눈물을 그렁거리며 하는 대답이

『엄마 밥주。인제 가지말어!』

하고 도리질을 한다。

그때야 비로소 큰방문이 탁 열리며、싀어머니가 얼골을 내민다。

『이년아 뭣하려 이집에 또왓서?』하고 싀어머니는 영악한 소리로서 다부지게 시작는다。

『어서 나가거라、뵈기 실타! 이 돌팔이 가튼 화양잡년아!』

그러나 이만것 쯤은 옥심이도 이미 각오하고 온바다。

『왜 안나가늬、이년아? 어서 나가거라! 그만큼 이집 망신을 식혓스면 장하지、또 뭘하려 왓늬? 이 모진 벼락마지 죽을년아……』

싀어머니는 이를 아드득아드득 갈아부치면서、물퍼붓듯이 후욕패설을해넘긴다。

그래도 옥심이는 수복이를 안은채、미─라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만이 섯다。

『저런 뻔뻔한 년이 그래도 안나가? 마자죽기전에 어서 나가거라!』

싀어머니는 집웃 어른통거지를 내보이며 쥐잡듯이 닥가세드나 그만 귀가 다되듯이、마루턱에 안자잇든 딸년을 내조츠며、

『이년아、너는 뭇슨 구경삼아 보고잇늬? 어서가서 너올바나더라고와!』

그러나 그말이 미차 끗나기전에、천수는 언제 발서 소문을 듯고 한다리를 절집 끌며 들어왓다───。

『그년 어딋소?』

하기가 밥브게 천수는 안해를 향해서 게거름을 친다。그리고 집고온 대작대기를 휘둘러서 몰강스럽게 옥심의 아랫동리를 처눕힌다。

『아이 구머니!』

하고 옥심이는 수복이를 안은채 사정업시 넘어진다。

『죽어라 이년아!』

눈도 뜰새업시 개잘녓한 물매질이 시작되엿다。낫바닥이든 어데든 옥심의 몸에는 아처롭게 푸른 줄이 죽─죽 선다。

그러나 옥심이는 이를 악담을고 매를바닷다。죽어도 조타는듯이。

그리하야 옥심이가 겨우 죽은듯이 되엿슬때、천수는 겨테 잇는 보퉁이를 마자거더차버리고는 재바람에 부처여서 뒤로 덜썩 주저안는다 그러나 그는 번개가티 일어나서 다시 매를 치켜 든다。

『백번 죽어도 앗갑잔흘년!그처럼 못견듸어서 나집을 나선년이 왜 또 들어왓서?구렁이가튼년!나가거라 어서!』

천수의 독한 매는 또한번옥심의 늘어진 허구리를 끈허지라고 내려친다。

『어서 그년 몰아내라!낫붓그럽다 더럽다。』

싀어머니는 맛질줄은 모르고 짜정 시원한듯이 아들을 부추기만 한다。

겁을 먹은 수복이는 울라리미테서 경풍알는 애처럼 월월 떨며 울어대고 옥심이는 빼드러진채 마진 자리를 실룩거린다。

사립아페는 어느듯、철업는애새끼들이 구경이라고 모여서고 네울타리 구멍으로는 윈동내여자들이 서로 돌어다 물려고야 단이다。

『나가거라、이 망할 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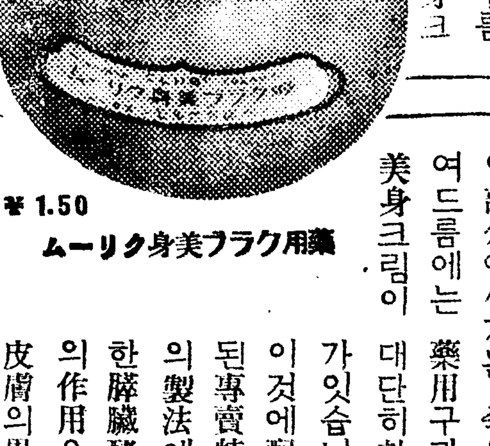
급기야 천수는 안해의 한쪽 다리를치켜들고개끌듯이끌엇다。

ホルモン 更少美容

어느덧 不愉快한 잔주름、주름、弛緩이 생기는것은 젊음에 必要한호르몬의分泌이衰弱되기때문입니다。그런데 호르몬을 含有한 젊어지는 化粧水 구라부乳液 또는 藥用구라부美身크림을 使用하면 生理的으로 組織을 젊어지게하는綜合호르몬의補給에依하야 언제까지든지 젊음과 健康한살결을 保護할수가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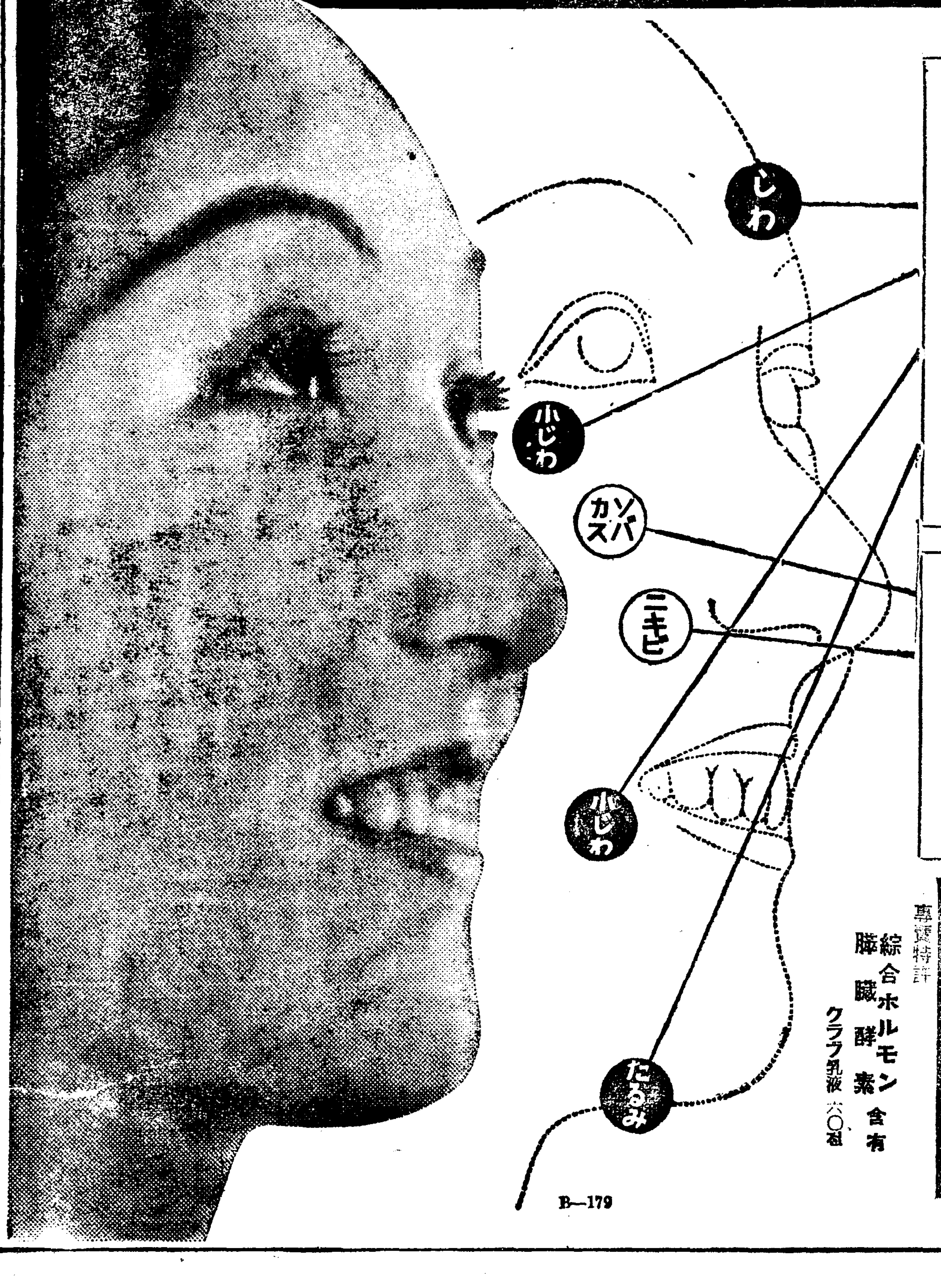
주름、잔주름、弛緩을防止
強度ホルモン

이部分에 어느듯생기는 주름、잔주름 弛緩을 防止함에는 藥用 구라부美身크림 또는 젊어지는化粧水구라부乳液을 使用하여주시오 新發見의前例업는 綜合호르몬이 皮膚로吸收되여 注射와同樣의 作用에依하야 生理的으로 살결을 젊어지게하는 優秀한效果를 내입니다。그럼으로 잔주름하나 업는 고흔살결이되여 놀라웁습니다。特히 밤주무실때 살결에 잘발러두십시요。이튼날아츰에는 떡이나 生氣잇고 自然스런운 살결이됩니다。



죽은깨、여드름을防止
膵臟酵素

이部分에생기는 죽은깨 여드름에는 藥用구라부美身크림이 대단히効果가잇습니다 이것에配合된專賣特許의製法에依한膵臟酵素의作用으로 皮膚의異狀色素惡脂肪을 藥理的으로 分解解消하기때문에 죽은깨、여드름을 防止하고、빗갈을 히게하고 아름다운 살결이되게합니다



更少化粧水
クラブ乳液

專賣特許 綜合ホルモン 膵臟酵素 含有
クラブ乳液 六〇전

B—179

解惑의 一言
—外國文學研究에對하야—
崔載瑞

筆者는일즉이 本紙學藝面에서 『月評』는外國文學研究家』라는一文을 發表한일이잇다。이에對하야 李軒求氏는『文壇抗辯』(亦是本紙學藝面所載)中에서 『文學은=抛棄될것인가』라는題目아래 다음과가튼批評을하얏다。

『最近과거리 자못 外國文學에 解惑—이러한態度를 崔載瑞氏는 自身의입으로써 諷刺(?)하고잇거니와—이마치 海外文學派의機能을抹殺하라는 不詳스러운態度로써 한께度外視하라는 傾向은 假使海外文學派라는一群이無能하다고치더래도 이것은 分明히 自己의無知와 偏狹된自滅作用밧게 안될것이다。』

내本意를 가장잘理解해줄사람와 한분이라고 생각하엿든氏에게서 이런말을듯는것은 筆者로서도 失望을禁할수업다。나는 이글가운데서 朝鮮의外國文學研究家가 다만外國文學의研究라는理由만으로써 文壇에 相當한地位를차지할수잇는過渡的 現象을指摘한다음、그러나 外國文學에從事하는우리들이 果然이地位에相應할만한努力과成果를 世上에보혀주엇느냐하는點을 反省하고 警告하얏다。그强調는 李軒求氏가 半나마認定하는배와가티 諷刺的이엇다。악가말한 우리文壇의過渡的現象이 諷刺할만한價値가잇다면(나는 그價値가 充分하다고 생각한다)

그諷刺가 度를넘것다는法은업슬것이다 諷刺는 元來 戲畵化의 要素를 품은 誇張的文體이다。諷刺는 오즉 戲畵化의 手段을 빌어서만 그가批評하라는 愚劣과 罪惡을 뚜렷하게 描寫할수잇기때문이다 事實을 事實의 雖大만하게바게 그리지안는다면 이제새삼스럽게 諷刺의武器를 끄러낼必要는 업슬것이다 내글이 가지고잇는 몃개나의諷刺로 말미아마 小小한個人的體面의 損傷만을 傷心치말고 내글이 가지고잇는 本意를 理解하야주기바란다。

氏의批評을읽으면 내가 外國文學을 輕蔑하고잇는것가티 들린다。千萬意外의人事이다! 나는 外國文學의研究가 現在朝鮮文學에 唯一한刺戟으로되지안정 가장 貴重한 刺戟의하나가되리라고 굿게믿고잇는 한사람이다。이런信念이 잇기때문에 나는 朝鮮文壇에잇서서의 外國文學研究家의 過渡的重要性을 認識하고 또 그點을認識하니만콤 도라서 우리自身을 反省할때에 붓그러움과 아울러 痛憤을 禁치못하는바이다。이글은 그動機에잇서 何必로 누구누구를 誹謗하라는 攻擊文이아니라 내自身에 對한 自戒와 自勵로 삼으려는것이엇다。그러나이것이 何必 내個人만의 問題라고는 생각지안흣기때문에 그글을 發表하얏든것이다

나는 朝鮮의現狀에잇서 外國文學研究機關의設置를 力說하얏스나 그意見이 자못抽象에 지나지못하고 아모런 具體的內容을 提示치못하엿슴을 이제도 붓그러워하는바이다。그러나 李軒求氏는 그나마도 이熱意를 無視하는模樣이다『崔載瑞氏의『月評』은外國文學研究家』라는 聚頭不得의 低迷한暴言』이라는 말은 이가튼 粗忽에서 나온말이 아닐까?

나는 朝鮮文學과 外國文學과의 關係를 여러가지로 深刻하게생각하고잇다。意見을 發表하기엔 아즉도 내自身未解決狀態에잇는 問題가 너무도만타。다만 내自身의本意를 誤解한듯싶혼 글이 눈에 띄엿기에 念자스럽게一文을草하는바이다 (六·二七)(끗)

學藝

批評私論(二)
科學的態度와 袂別하는나의批評體系
白鐵

나의 見解에 依하면 理性的이라는것이 批評의 唯一한 性格이아니고 그批評이 理性的인가 感性的인가는 具體的으로그 批評家自身의 性格과 氣質에依하야 決定되는것이라고 미더진다!

여기서 具體的으로 事態가要求한다면 우리들은 다음과가튼 **境**遇를 생각해보는것도 當然할줄안다。

萬一 良識과 明敏性을 藝術家의 主要道德으로 생각하며 數의 科學方面에서 그의 硏鑽을 加해간 『포올·발레리이』가튼 作家에게 批評을 씨운다면 그의批評은 數의 嚴正과 그密度를 그의 性格으로 삼엇슬것이다 왜그러냐하면『발레리이』는 數의 嚴密性가운데 도라혀 一種의精神的愉樂을 發見햇스며 또한 그嚴密性을 直接으로 詩歌에 適應시키려고 한까닭이다!

하나 그와反對로 이번은 感性과 心理的直覺을 가지고 想像的으로 往往히는病理的으로까지 人間性의 地下暗室을 探索해간『도스토이엡호스키이』가 批評家가되엿다면 그의批評은 良識과 明敏과 理性의것이아니고 異常하고 珍奇하고 誇張되고 그複雜한 興奮과 幻覺과 睡魔의 紛爭境가운데서 一見 精神的混亂에充滿되엇슬는지모른다! 그 **批**評의 性格은 把捉하기어려운 意識과 未分明과 朦朧과混交等의 數多의 怪物의 爭鬪와 가튼混亂된深淵일것이다

하나 以上의 두가지 批評型의 性格에 잇서 어느편이 一層 文學의 價値를 理解하고決定하는데 그中心과 眞實을 正確히 잡어내일것일가 생각할때에는 一言으로 우리들은 그어느편을 主張할수업슬줄안다!

이두가지의 어느편이 批評의 性格으로서 優秀한것일까를 容易하게 決定할수업다는뜻이 過去의 先輩들도 제각기 여러가지所見을 批評에 대하야 告白하고잇다 例를들면『리일』과가티『批評家의 第一의任務는 詩人의 目的이 眞實히 무엇이엇든가 그가 해여야할 職分이 그의눈에 어떠케 反影되엿든가또는 그에게 試現된 材料를 가지고 그가 어느程度로 그것을 實現햇든가 自己自身에게 分明히하는것이다』라고 말한것가튼境遇、그런境遇는 괴테의 **見**解에서차저볼수잇다 괴테는 批評을 破壞的批評과 創造的構成的 批評의 두가지로 갈려서 보면서 前者는 機械的基準에 依하야 判斷하는 批評임을 指摘한후 後者에 對하야는 다음과 가티말한다!『作者가 무엇을 하려고 意圖하얏든가 또한 어떠한 程度로 그는 自己의 計畫을 遂行하는데 成功하엿는가等의 基礎的인것에 對答하는것이다!』라고! 批評에잇서 이런 態度를 主張하는것은 近間의 우리 評壇에 잇서는朴英熙氏가 잇다

批評에 잇서 이런態度는 徹底히 理性과 科學에 批評을 許諾하는것도 아니고 또한 感性과 心情에도 그特權을 許諾지안는 中立의 批評態度다 그것은 結局은 내가 指摘한 그批評의 두가지性格中에 어느것을 決定하기도 困難하다는 懷疑狀態에서 取하게 溫聰한 批評態度라고 본다

그代身 主로 前者의 立場에서 테에누·산트·부브와가티 **作**品의 血緣、敎育、嗜好、日常生活、其他 環境、文明潮流의 一切의例證에서 作品의 價値를 說明하려는努力과『프렛커어』와 가티『詩의 批評은 가장 困難한 科學의 하나다!』라고 主로 테크니에對한말이나 亦是 批評을 科學的으로 보려는見解와 過去의프로레타리아文藝評論과 가티 思想的 世界觀的基準에依하야 作品을 裁斷하는 批評가튼것은 當然히 前者의 批評일을 辯護하는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後者即心情과 感性的批評을 위하야도 다음과가튼 例證을 들수잇다『批評은 하나의 魔術的인 거울이다 그가운데서 藝術品은 새로운 强勢를갓고 새로운 關係에서 反寫한다 今日의 批評에잇서 必要한것은 언제나 생각하는바이나 同情잇는 想像力이다…』라고『리듣』는 말하고잇스며 아나톨·프란스가튼作家도批評家는 **宣**告를 내리우는 判事가아니고 傑作의 密林사이에서 彷徨하는 自己의 冒險을 詳述하는 感受性의 銳敏한 魂이다!』라고 말하며 甚한데 이르면『매추리의 알에對한 分析은 博物學者에게는 興味가 잇슬는지모르나 詩에 對하야는 아무 意義도 갓지못한다 그보다도 批評은 童話의 一節이다!』라고 斷言한다!

漢詩
綠陰 押鶯 考選

佳作五之六 大阪市 文昌來

祝融司節屆朱明
萬樹繁陰如海成
清凉滿地風微動
濃綠浮空雨快晴
枝邊頻過彷徨蝶
葉底深藏宛轉鶯
坐看日斜漸移影
始知歲色逝無情

女流隨筆 裏腐草 ⑥
劉如玉

高山頂上에서는 물이재게끌코 생갑이의국은식는법이다。高壓이업고 기피가업는까닭이다。사랑도그러하다。結婚式은 戀愛의絕頂에서 行할것이아니라 山麓에서 山頂을向하고『마ー치』를질것이다。엇전지 戀愛란는 戀字부터가 危險性을적잔히가젓다 勿論請실紅실는리고 百年偕老하자고 굿게誓約한다는 表象도되겟지만 혹시이사람을 向하고도 야실야실 저사람을보고도 야실야실 귓속말을한다는 戀字가아니라고 누가保證할것이냐。

×

人類의歷史는 鬪爭으로始終하랴는가?。夫婦싸홈도 亦是鬪爭이다。아니 모든鬪爭의始作이다 거긔도不平等條約廢止 軍備縮少等等이 끗힐업시 問題에오른다 『윌손』大統領의 十三個條도 『로카르노』條約도 모다世界에 平和를 가저오지는못하얏다。

나는웨친다。末來의 平和條約文第一條에는、반드시『締約各國은通하야 最先、女子를絕對尊敬하며、또夫婦의 和合으로써 全世界의 眞正한 平和의 基準을 삼음』이러케 强調하란다

男? 女?

男性的인 女子도 쓸모가 적고 女性的인 男子도 큰 期待는할수가업다。女子는 女子다웁고 男子는 男子다워야한다。담지아니한 女子나 男子처럼 꼴보기실흔것은업다。女子다운 女子를 淑女라하고 男子다운 男子를 丈夫라고한다。또 女子의 女子다운 美德을 婦德이라고말한다。그러나 여긔 對한 『夫德』이란 말은 업다。아마도 德이라면 女子에게서만 求할수잇는것일지도 모른다。

×

婦德은 마찬가지 德이로되 婦德은 貞節하면서도 『裏德』이라면 窒塞을할다—寡狀은 실지는안치만。

夫婦의 夫나、夫妻의 妻나『안해되기는 마찬가지다。그 內容에잇서서 何等의 差違도업다。구태여 말한다면 妻는 新하고 婦는 文에 갓가웁다고나하겟다。

또내안해는 妻라고하지만 남의안해는 夫人이라고하고 一般的으로 女人을 稱하야 婦人이라고부르니 이것을보면 妻라는字에는 獨占性、所有性을가진가도싶다 그러하다면 거긔딸린 副産物、即妻德도 自然獨占性을 띄엿슬것이다 그래서 요새말로 엔료(遠慮)하는데서 나온까닭인가? 매우人道的인걸。

×

牝鷄晨이라고 암닭이꼬피요! 하는것을 不祥之兆라고하면서、家貧에 思賢妻라고하니 甚한矛盾이다 人窮反本이라고 그네들의 一種悲鳴이다。

또 안채가웃둑하다는말이잇다 아닌게아니라 서울와저보니까家屋制度가 南北村이다르고 中바닥집이다르다 그런데서울온지 不過十數年에 所謂南北村宰相家의 집들은 하나식 둘식文化住宅으로 드러가버리고마니 말할나위도업거니와 그外에中바닥資産家집들은近來와서 外舍치레가때成風한모양이다。그와同時에그네들家庭에서도 父子爭訟이니 家庭致敗니소리가種種들린다。生活樣式이나 治産齊家의 規模로보아서 입때까지 社會의中堅이라고할만한 그階級까지 動搖를보게되는것은 정말섭섭한일이다。무슨舍廊이갑작이웃둑해지면서부터 그러케되단는말은아니나、그러나 안채가노프면집안이 안된다는것도 一種의强辯일뿐이다。

×

世上은分業이다 專門이다。제各其제天分이잇다。얼골이검은놈은 숫장사나 煙筒掃除를식혀야하고 흰놈은反都家가 제格이다 이것을그르치면 큰일이다。亂離다。

『居於內而不言外』라는 말을어떠케 解釋하는가。이는男子의『居於外而不言內』를 前提로하고 先行條件으로하고 하는말이다。決코 女子에게對한 片務的道德律은아니다 勿論女子로서 『不言外』를 甘受한다 다만男子의『不言內』를 對立的義務로서가 아니면 안된다 아니 그러치아니하고는 不言外의 義務를지힐수가업다。

一步를 더나아가서는 女子의 對外意見도 어느程度까지」容認하지아니하면 안될形便이다 參見하랴서하는것이아니라 아니할수업는 事情이잇서서다 이것도 一種의 『內助』라고하겟다。

×

우리는 아직까지『外助』라는말은 들어보지를못하얏다 外助는커녕『外妨』이나 말앗스면! 하는實業家婦가업마나 만효나 나는 男子의親入보다도 外人(外部)로부터의干涉을 더욱警戒하라고싶다 다시말한다 닭지아니한男子처럼 이아치는 것은봣다。나는이러케들엇다。

『蕩婦로서는、오히려 偉大한 子女를 養成할수잇다』고。

×

또말하라는것은 內外의 區別論이다。男女의區別制度은 生理的然條件이 纖定되엿지만 內外(안팎)의區別은마음대로옴기수가잇지아니한가。안房과舍廊도內外요 家庭과社會도內外요 國家와 世界도內外다。

朝鮮의男子여! 願컨대 그대의內의 領分을좀더 解放하고、內外의 境界를 주려 偉大한수업는가。안房에서 家庭으로 家庭에서社會 社會에서 世界에로。

×

朝鮮의男子여! 엇지 그다지도跼蹐하가。비노니 그대의男權을좀더 擴張하사이다! 女權擴張이 問題가아니다 男權擴張을爲하야 우리는크게用力하야 주어야할때다。

盛夏風景(二)
安夕影

반찬가게의 죽은
생선을
바구니낀 젊은여인이 사간다
그부드러운손에 식칼이들리우면 그물고기의시체가 동강이나겟지
동강이난 비눌벗긴 물고기의살을그여인이볼때
자긔의 고흔살이끈허지는 그아픔、그슬픔을생각할수잇슬까
수술스테우에오른 한여인의찌저진살을 은칼로 꾸어맨다하드래도
그의생명이 이즈려진거나가려슬퍼하는것을 보앗다
나는이런여인만은 결코물고기를
안 먹을줄로 안다

지금 바다에는
물고기에 때가 물결을 라고 흐를것이다
또ㅣ바다와 바다、항구와항구에는 도회에서간 젊은이들이
물고기가티 꼬리와 꼬리를 물고
바다물에서 이한여름의 환회를 맛볼러이지
나는 도회의 여인들이
아여름의 바다의 그것들로만 알고 반찬가개에서 물고기를
사먹어도 조흘줄로 한다

◇

하늘이 푸르다
만약 저 하늘이 업스면
우리에겐 명일(明日)이업슬러이지
저기에는 히망이잇다 력사가 잇다
창조가잇다 엄이잇다 사랑이 잇다
나는 사람의죽엄을볼때
저하늘을 처다 보앗다
내게서 모든것을 일흘때도 저하늘을 본다
또——
나는 사랑하는사람의 얼굴을 보기전에 저하늘을보앗다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할때 저하늘을보앗다
또——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잇슬때에도 저하늘을보고 생각하엿다
나는 저하늘에서 배운것도만코 어든것도만타
아프로도 저하늘은 나를버리자안흘러이지
오ㅣ 여름의 푸르한하늘이여
다만 하나인 나의 벗이여
나에게 새힘、情熱을달라
새 사랑을달라

紀行 六月의藥山東臺 (一)
玄極野

(寫眞은 藥山東臺)

初夏의豊饒한路傍、山위로길여프로뛰여 오르는 풍金、송구는불길가튼新綠의灌木들 틈틈의香氣그윽한山길로、或은따스한잔디와넓은田野를헤치고、멀리 駱駝등가티노피소슨藥山의連峰밋 구비지어흐르는九龍江을건너、自動車는벌서藥山北麓밋水口門狹谷으로다름박질하고잇섯다。

이곳으는구나 金剛山溪流와조금도다름이업서 萬瀑洞어구에彷彿하다고하는、넓은盤石깔린、돌만흔溪流와、량여페險하게소슨岩壁、溪流까지蔽하게더핀老松의숲、이들은 오직巨山만의 橫額이엿다。

이사이로멀리 太古부터의靜謐을말하고잇는 푸른圖穹이 뵈이고 所謂鶴이나는듯하다는 東臺의絶壁이 번듯번듯眼界에 드는다。

온겨울 해도못보고 무서운추위와 싸호든山谷을 봄의奇績을안고 눈녹으는兩억개에 熱情의발자최를밧든山嶺은 톨한포기 나무닙하나에도 여름의鼓動과 푸른의숨과 소가누으든듯한 그巨體를볼수잇스며 四方山岍속에 山鄕寧邊이 길게거리를짓고잇다 구비구비둘려싼 山峰들은 白頭山脈의支脈으로 密雲山 牧丹峰 南山、藥山이 峻險한連峰을 이루엇스며 이山脈이天然的으로 座甕鐵壁이루고 寧邊市街를 안고잇다 이天險을 利用하야 周圍約五十里의堅固한 鐵甕城이 築成되여잇다 그럼으로 古來로契丹、蒙遜등의侵入으로부터 數次蒙兵의 侵入과叛亂에도 그捨持를일치안코 一夫當關萬夫不敵의 要塞巨城을 이루고잇다 藥山天柱寺東岩우에 鐵甕城碑를보면 李朝太宗十六年 距今五百餘年前에王旨를奉하야三萬六百人이十七日間에 築造云云하나 勿論저을築城은 그보다도 오랫슬것이다、이곳에서 李适이가 叛亂의根據를삼으것도 有名한事實이다。그러나偉大한時代의힘이여、至今은 南門과北水口門外에는다頹落하고 구들장으로 끼우다남고 손잇지안는 山頂우의城만이 잇기와즐가에더피이여、찬追憶의 자최도업시、다람쥐가 旅人을놀내게한다。

겨우小暇를 어더 同僚이든 몃몃親友들과 그립든南山과 藥山에登山의길을떠낫다。때는午後四時 初夏의 노픈蒼空을愉快하게 다름질치든太陽의빗도 저윽이떨리고 고요한숨은 땅의냄새 꼿香氣만이강하게 숲의沈默을차고잇섯다。나는이곳에서壯麗한 藥山落照의 긴하직을보앗고 물과가티淡綠의 生氣업는薔薇의 먼薄明을보앗다。힌더풀가티 鈴蘭이어둠에 떠오르는黃昏의 숲길 그곳거룩한 靜寂의숨길속에 나의冥想은자랏다。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는것가티 이숨의 沈默속나는 사랑하엿다。피도는 살과가티 生氣도는땅그의 愛人은 草木이다。즐거운숩이다。太陽、비、바람、濕氣早春의 地球의 陣痛 混亂한바람속에 태여난숩들이다。그러나 至今은 아모成長의 苦惱도업시 자랄대로 퍼질대로 퍼저서 樂園의길을이루고 잇다。到處에잇는 神秘로운숩、巨松의銀脚아래 넓은溪谷은 가지가지녯記憶을 새롭게하엿다。

산生物가티脈動하는 太陽의푸른빗아래 내硬直한언마음의屍衣를벗고저 내속에잡자는 神秘의樹液이깨여지고저 그봄타는 眼孔의 사랑에 오돔을던지든때도잇섯고 가을微風이 琴線과가티中空에노래할때 하늘노피 萬物의 精靈들이떠들며 웃는소래를들을때도 잇섯다。

忍辱과自我로채직질하든 내속可憐荷 쫏기우는사슴의魂에게는 민물에흡치는언떠과가티 한가지한가지모든꾸김불은사러저갓다 靑春도 사랑도 魂의靈感의샘도— 외로이이숨을얼마나 悔恨과눈물로거럿든가。自然만은 그러나오직이地上에서 숨질 엇던純粹한 無意識의 甘美의安息과 자랑을 도리켜주엇다。

南山허리의 甘泉에서 목을추기고 다시山麓스룹의 넓은들을지나鐵甕城과 시내를넘어 藥山東麓에잇든 天柱寺에이르럿다。

朝鮮當時는 八十八間의 宮殿式淸北(平北)禪宮이든天柱寺 비록頹落하엿스나 아직도王宮을想像식히는左右廣廊이 翠緣의連峰사운데이마를고이엇다。天柱寺뒤길로數百間蟠岩石磴을올나가면 一步一步그展望이넓어저간다

海外短信

『와일드』의米國發見

『뉴ー욕』發同盟郵信』『오스카·와일드』의 놀날만치 奇智縱橫하든것은 그 同記者의모다 傳해준바와갓치마는 最近『허ー코ー트·브레ー스』에서 出版된『헬리·스미스』의 『오스카·와일드』의 『아메리카發見』中에도 매우 秀逸한것이 採錄되여잇다 『와일드』가米國에渡來한것은 一八八一年인데 渡米하게된 事情은 『길버ー트·사리반』의 新作 『오페렛타』『패ㅣ시엔스』의 主人公이 『와일드』를 『모델』로한 때문인듯하다고한다。同劇의 『프로듀서ㅣ·도ㅣ리·카ㅣ트』가『페ㅣ시엔스』의 米國興行에 압서서『와일드』를 渡米식히고 『와일드』를 新聞에 宣傳식히면『페어시엔스』의 成功을 疑心할 餘地가 업다는 作戰으로 純眞한 『와일드』를 속혀서 米國에 講演旅行을 가면 大金을 獲得할수잇다고 꾀운 結果라고한다。

그래서『와일드』先生은『뉴ー욕』『만핫탄』에到着上陸한 最初의 警句는 稅關吏로부터所持品의 申告를請求바덧슬때『自己는天才以外에申告할만한 아모것도 가지지안헛소 하여서稅關吏를 揶揄한것이엿다 『칸사스』州의 『그릿그스뷔ー르』市에서 美學에對한 講演依賴電報에 對해서는『먼저貴市의市名부터곳치는것이조켓소』하는 答電을치고 마친내가지안헛다 어느新聞記者가『와일드』의 險言을사정엇시엇슬때『와일드』는 그記者에게向해서『그原稿는 原稿料를얼마나바덧소』하고 무르니까 『六弗』이라고하엿다『米國서는 거짓말갑시 比較的싸구려』하여서記者를 赤面식힌일도잇다(完)

科學雜錄

伊太利人口 五千六百萬

『에디오피아』를 併合해서 新『로ー마』帝國을 建設한 伊太利는 五月十一日로서 新『로ー마』帝國의 面積 三百八十六萬二千二百九十二平方키로메ー터이며 人口는 五千六百八十六萬三千二百名이라는것을 發表하엿다

『올림픽鐘』

今八月 『올림픽』參加選手들의 가슴을뛰놀닐 『올림픽』鐘은 五月十一日 『크르네왈드』競技場에 建立되는塔高七十六米의 高所에달며 鐘의 重量은 十噸이라고

四八五噸의發電機

『피란드』政府가 發表한『로ㅣ히하라』發電所에 裝置될發電機는 各國會社의 猛烈한 競爭의結果 獨逸의『시멘스·하르스케』會社에 落札되엿다 이發電機의 直徑은 九.五米 長은 七.五米 重量은 四八五噸인데 製造가끗나면 五十噸式 解體해서 運搬할것이라고한다

英國의 『테리비·레레폰』

今年三月以來 伯林—『라입찌히』間에 開通된『텔레비·텔레폰』은 其後 各國 科學界로부터 注視되여잇섯는데 最近 英國의 遞信大臣은 여긔에 着目하여서 可及的 速히 倫敦——바밍감——만체스타ー間에텔레비、텔레폰用케ー블을 敷設할것을 公佈하엿다 그리고 이케ー블은 非常히 高價인것으로서 一哩에 一千파운드의 巨額를 了하다고한다

新刊紹介

◆月刊野談 七月號(內容)李楨과道僧 獎君萬里行 朝鮮解源漫談 奇人金進士 老妓秋月 烈婦鄭氏 忠孝 黃島의노래等其他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 振替京城二八二一番 定價二十錢送料一錢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薄謝進呈

絢爛한 天分의 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會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一、蓮花(女)『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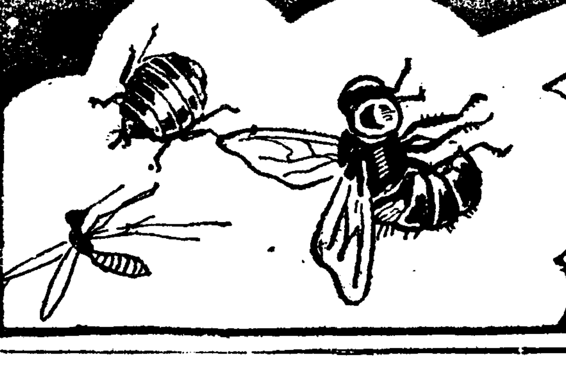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東亮特許 最强力殺虫劑
インピレス
(蠅必立死)



여름의强敵 害虫무리 一掃식히라!
傳染病의媒介者 파리 모기·빈대等도인피레스의撒布로곳全滅된다
世界的殺虫試驗法 뻬ー트구라데ー氏法採用
殺虫效力 百퍼ー센트
神戶 長岡驅虫劑製造株式會社

六月卅日부터晝夜二回大公開
二大映畵雄篇特選週間
正午十二時부터下午三時까지續映、夜間八時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유나이테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레뷰劇 칸다에鬪牛師
레온·막가레이氏監督
喜劇王에디·캔터氏大熱演
松竹蒲田現代劇部藝術作品特作品
監督…小津安二郎氏
現代劇 出來ごころ (出來心)
主演…坂本武氏 大日方傳氏 伏見信子孃
米國FBO社特作品無聲
로바트·데레시氏監督
西部活劇 鐵拳兄
主演 돌다이라氏 도리스·힐孃
여러분의 鐘路五丁目 電光一二三番
第一劇場

六月二十八日낫부터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四十分
米國미스코트社超特作全發聲版
大冒險大活劇 流線怪盜列車 前篇
壯絶!痛絶!百萬哩快走列車戰慄大爭鬪!!空中과陸地와의大冒險大連續篇
活劇界의巨人 TP마크·氏
快人…죤우엔氏大活演
暗夜를爆走하는流線型怪盜列車를目한破壞魔의出現——極惡非道의才智를變現自在!당신은幽影에잇는 그들—그—그림자가것는데…
所謂?
大都映畵社特作映畵!
時代劇 次郎長身代り旅
監督 益田晴夫氏
主演 藤間林太郎氏 北見禮子孃
浦桃花町 電龍三二番
桃花劇場

남모르는사이에 ワキガ는簡單히解消!

예부터 難治의病이라고 歸하는 와끼가는、梅雨季로부터 夏節에드러가 發汗時、特히不快한臭氣를發散하고、往來에서 지내칠적에도 궁금을불키고 북그러운생각을하지안흐면 안되는것입니다。와끼가 臭氣의 原因은 腋下의 皮脂腺으로부터 發生하는 脂肪酸그것의 냄새이고 一般通念의땀냄새等은 아니오니까 臨時땀안나는 藥等으로 一時를죽이여도 何等效果가업는것은 當然한것입니다。

藥效成分은 바로 皮膚下에 浸透하야 蛋白質과化合하고、異常皮脂腺細胞를 破壞하야 脂肪酸의 分泌을 阻止하기 때문에 와끼가의 根源을 解消하게되는것입니다。少量一、二、三回의 塗布로效果는適確、그리고 何等의 副作用도업고 臭氣의 分泌線을 除去하여잇는故로 再發의 念慮는 업습니다 아프지도가려웁지도 안흔 絕對無刺戟性이고 塗布感은 爽快、高尙한 芳香을 放하는 特殊良效藥입니다。와끼가로 걱정하시는분은 一日이라도速히 試驗後 시원하게 걱정을 解消하시여주시요!

快感의福音!
와끼가의 臭氣發散의原因인 脂肪酸을 除去하면 簡單히消滅되는것입니다마는 그것에는 레ー도藥用쿠레ー무를 塗布하면조타。本劑에 含有된 强烈한

レート藥用クレーム
定價 六五錢 一圓 二圓
全國藥店にあります
本舖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 平尾贊平商店
代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玉置合名會社

連載野談 (五一)

布衣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이잔만은사양 (十一)

울합이 아아울노의 명령대로 급히 뒤문을 열고 그 도망하는 녀자들을 깡그리 잡어다가 아아울노 장막아래에 모두 끌리엿다。

아아울노는 그녀자들을 갓가히 세우고 위선 누가 똑똑히 생겻는가를 보앗다。

그러나 그 녀자들은 모두뼈대가 굵고 허리통이 퉁퉁하며 얼굴이 억세여 보혓다。

『이애 녀자로서는 모두 사내 뿔쥐어 짐으개되엇구먼 어되하나 쓸것잇나?』

하며 아아울노는 크게 랑망한 빗츨 띄웟다。

그리하야 한참동안은 말이업다가 다시 그녀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하든 계집들인고?』

하고 아아울노는 우렁찬 목소리로써 물엇다。

『우리는 참으로 녀자가 아니라 남자요。』

하고 그들은 자긔네의 본색을 그대로 들어 말하얏다。

『남자야?。』

하며 아아울노는 크게 놀라는 빗츨 띄웟다。

그리고 매우 괴이히 생각한 태도로써

『사나히들이면 어찌해 녀복을 햇는고?。』

『우리는 다름 사람이 아니라 고려군사인데 아마도 달어나야할 사정이잇서 다라나기로 나선바 군사복색 그대로나 남자복색을하고 달어나면필경 잡히기가 쉬운까닭에 녀복을 채리고 나선것이오。』

『그 달어날 사정이란것은 무엇인가?』

『밤즘 고려군중은 조원수가인사불성으로 알코 김선봉이도또한 학질에 걸리여 두린눕고 그밧게 다른 장수와 군사들도 모두 알룸 사람이 늘어가니 아것은 아마도 고약한 병이 생긴줄 아옹 그러니우리와가티 아직 성한 사람이라투 어느때 병에 걸릴는지 알수업고 설혹 병에 안걸린다할지라도 장군께서 군세정을 아시고 드려치시는때는짐작못하고 죽겟스니 그러케명새어서 죽을 까닭은 업슴으로 도망질을 하기로작정한것이옵 그런데 불행히 장군께 잡혓스니 죽을 운수는 일반인 가하오。』

『분명히 그러케 모다 앓어누엇는가?。』

『지금이라도 가보시옵 누가들어섯지라도 막울사람 하나히 업술것이옵 우리가 녀복을하고 나선것은 우리장수에게 잡힐가 염려한것이아니오 실상은 장군께 잡힐가 염려한것이옵。』

『그래!。』

하고 아아울노는 먼저 잡어온 보발군과 녀복을 채린 군사들의 말이 서로 틀림이업슴으로 그들의말을 그대로믿고 곳 이 긔들을 라서 고려진을 치기로 작정하얏다。

그리고 즉시 물질을 채비를 한뒤에 아아울노가 장대에 올라가 친히 북을 울리며 진문을 크게열고 선봉장 울합으로하야굼 고려진을 치게하얏다。

이때에 그 녀복을 채린 고려군사는 둥에 분명 도망군이 보따리처럼 짜서질머진 염초뭉치를 꺼내어 일제히 불을 질럿다。

거란군의 진에서 북치는 소리가 요란히 들리고 뒤미처 화광이 충천하자 뒤로는 안사자 목에 불노을 채비를하고 기달리든 고려군사가 일제히 불을 질은뒤 고함을 치며 나서고 압흐로는 김선봉이 진문을 크게 열고 북을 급히 치며 중노수로하야금 어는 거란군을 향하고 어지러히 활을 쏘게하얏다。

이때 거란의 선봉장 울합이 압을 서서 달려나오다가 뜻아닌 화광이 먼저 자긔진중에서 일어남을 보고 곳 말머리를 돌리려는 지음에 어지러게 쏘다지는 화살을 밋처 피치못하야 필경 땅에 떠러젓다。

이광경을 보든 아아울노는 곳 몸을 피하랴하나 압흐로 나가자니 화살이 무섭고 뒤로 도망하자니 불길이 맹렬하매 과연 진퇴양란이되여 어리둥절하얏다。

그러다가 아아울노는 뒤로오는 뜨거운불길과 압흐로 쏘다지는 화살을 피치못하야 필경은 먼저 화살을마저 끈허진 목숨이 나종에는 뜨거운 불길에 싸히여 불귀신이되엿다。

讀者社交室

▲六月二十六日午後十時半頃에 通義洞中國料理店洪順樓압헤서乳幼兒帽子(靑色에白線이有한)帽子를拾得하야 保管中이오니 遺失하신분은 社交室을通하시든지左記場所로問議하시면 還送하겟나이다 苑西町四의三六 洪白石

▲京城府內乾魚商委托販賣商의 住所商名諸者社交室을 通하야알으켜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全北南原邑 K

▲本人이 京城府龍江町九九番地에 共立醫院을 開院하고 施療中인바 醫師一人을採用코저하야 社交欄을通하야 急告하오니 左記條項을 參考하시와 有意하신분은 親히來談을要함 月給은 六十圓을드리는同時에 住宅을無料로 빌려드리겟슴니다

▲未安하옵과 感謝하옵는後日에말슴드리겟사옵고 올리昭和四年五月十日은 양력으로엇지되는지 고마운어니兄님말슴해주시면感謝하겟슴니다 遂安 姜波

▲小生은 本籍京城府八判町一四八番地에둔 靑年이온대 自動車運轉免許證을가지고 잇사오니 自家用이나 貨物自動車運轉手로 被雇用하고저하오니 讀者여러분께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京城府鍾路府町一四四 韓圭弘

讀者消息

朝鮮聲樂研究會 第三回定期總會

市內益善町四番地에 잇는 朝鮮聲樂研究會에서는 六月三十日午後一時 同會館에서 第三回定期總會를 開催한다고한다 本來는 五月十二日에 開催할 豫定이엇스나 여러가지의準備關係로그와가티延期된것이다。

▲京城이나 或은地方이나實期 法律講習會를 開催하는곳이잇스면 感謝하겟스며 法律研究家諸氏中講習會를 開催하여주시면會員이되겟나이다 開城 小市民

▲農安에게신 文士或은 文豪生活을 하시는 諸先生님께 상가합하나이다。生은現在 某專門學校에籍을둔 文學少年이온데、家庭形便上、學資에 自由가 敍事도엇서 方今도 苦學으로一貫菁進하는中이오나 畢업마라도、도움이될까하오니 諸先生님中에 或 書生이나 家庭敎師（普通學校敎練生活에經驗이잇슴니다)를 두실분이 계시다면 此社交室을 通하야 알니여주시옵소서。兩寢食外에는 希望지안사오며 中 不提不限處遇이시라면 어느것이라도 한가지스것도조쏩니다 市內義州通二丁目二三ノ二 崔 峰

▲十八日夕刊 平澤一讀者의게答합니다 大正元年陰九月三十日은陽十一月八日이요 大正三年陰四月十七日은陽年陰五月十一日이요 (測候所 鄭生)

▲小生은 京城帝大醫科生이온대 事情에依해서、高普二、三年生의家庭敎師를 希望하오니採用하실분은 紙上으로住所를通知해주시기를바랍니다 市內通仁町一四一 金一濟

▲諸位게告합니다 農村出生의 今年十八歲少年입니다 일즉이農村에서 某公立普通學校를卒業하고家庭形便上 上級學校를못가고 書堂에서 漢文을約三年가량修學하엿습니다 그런데約一個月前就職次로上京하야留宿하고잇습니다 商店이나 會社給仕도 조읍니다 寢食만주시면 何處라도關係업으니 使用하여주시기를伏願합니다 京城府上往十里町二六六 金仁淳

▲故金圭鎭(海岡)先生의令息 關係하시는 書畵研究會의住所를아시는분은 社交室을通하야回答하여주시든지 或은左記住所로回答하여주시옵을伏願하나이다 市內淸進町九三 韓 鎔

▲一錢、五錢、十錢、五十錢짜리補助貨의造幣年數가 大正七年인바엔 高價로買入한다하는말이잇스니事實입니까? 事實이라면 京城何處에서買入하난지 下敎하시면 千萬感謝하겟습니다 仁川 S·Y

▲六月十九日讀者社交室欄二人째 무르신 苦悶生에게 答합니다 問議事項이무엇인지 아지못하오나 商業이나 實業方面을問議하면 아는대로答을 하겟습니다 本月二十二日前이면 樂園町一〇四肥料の索出張販賣員詰所로 來訪하시요 二十三日頃은 楊州出張을 갈가합니다 書面도無妨

▲늘 그리옥파랑새兒이여! 兒의글월을바더본지가 그어느때이든가요? 記憶조차살어지고 아삼푸레합니다 왜?오래도록沈默속에서 消息이엇슴니가?그리고 只今은 어데게시나요? 愛讀者諸氏中淸津게시든 옥파랑새兒의 住所를아시는분이게시면 本社交室로나 左記住所로下致하여주시옵소서 平北龍川郡楊市 安永俊

▲저의게 暗室不用 寫眞機一具가有하온대 누구시든지 有意하신分에게 讓渡하겟스니 住復葉書로 通知하여 주시압 慶北慶山郡河陽面琴樂洞七五 盧京鎭

라디오

二十九日 (月曜)

◇午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데마크』(一) 培材高普 辛鳳祚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 講演 早-소-와近代思想 曺希淳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illegible] (나)唱劇調 박타령

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九時 歌曲

一、界面 二、數大葉 三、界面頭擧 三、弄 四、界樂 五、編數樂

唱 [illegible]桃 金蘭珠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〇分 노래工夫 노들江邊外

一、노들江邊 二、도라지타령 三、멀양아리랑 四、靑春歌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細笛 玄山玉 短簫 高載德 崔壽成

◇同一一時 레코-드音樂 (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 이야기 山田俊盛

◇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同七時三〇分 (仙) 講演 鹽谷榮 長谷部言人

◇同八時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東) 長唄 松島庄三郞外

◇同八時五〇分 (東) 라듸오도라마 花柳章太郞外

三十日 (火曜)

◇午後零時五分(東) 吹奏樂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酒田國一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婦人에게자미잇슴科學이야기 養正高普 崔在澔

◇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修業旅行『데마크』(二) 培材高普 辛鳳祚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尹乙洙

◇同八時 講演『演劇과人生』 柳致眞

◇同八時三〇分 才談二題 一、神主明市價 二、서울議文은魚物 崔星源

◇同八時五分(東) 피아노獨奏 //英雄變奏曲// 作品三十五、베-토-벤作曲 파올·쑹스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沈淸歌 方應敎 鼓手 韓成俊

◇同一一時 레코-드音樂 (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六時(東) 傳說이야기 坂本功

◇同六時二五分(東) 靑年의時間 各國의學生生活

◇同七時三〇分 講演과合唱 講演 棟居俊一 合唱 專賣局有志

◇同八時 外科手術과講演 小川外科中條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木村重勝

◇同九時五分 피아노獨奏 파올·쑹스

★曆★ 六月三十日 (火) 陰甲午五月大(十二日) 癸未·木·尾·除

●嫁娶納財安葬에宜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廿世紀폭스社의알스·페이孃……◇

映畫短信

十萬弗副收入에 稅金八萬餘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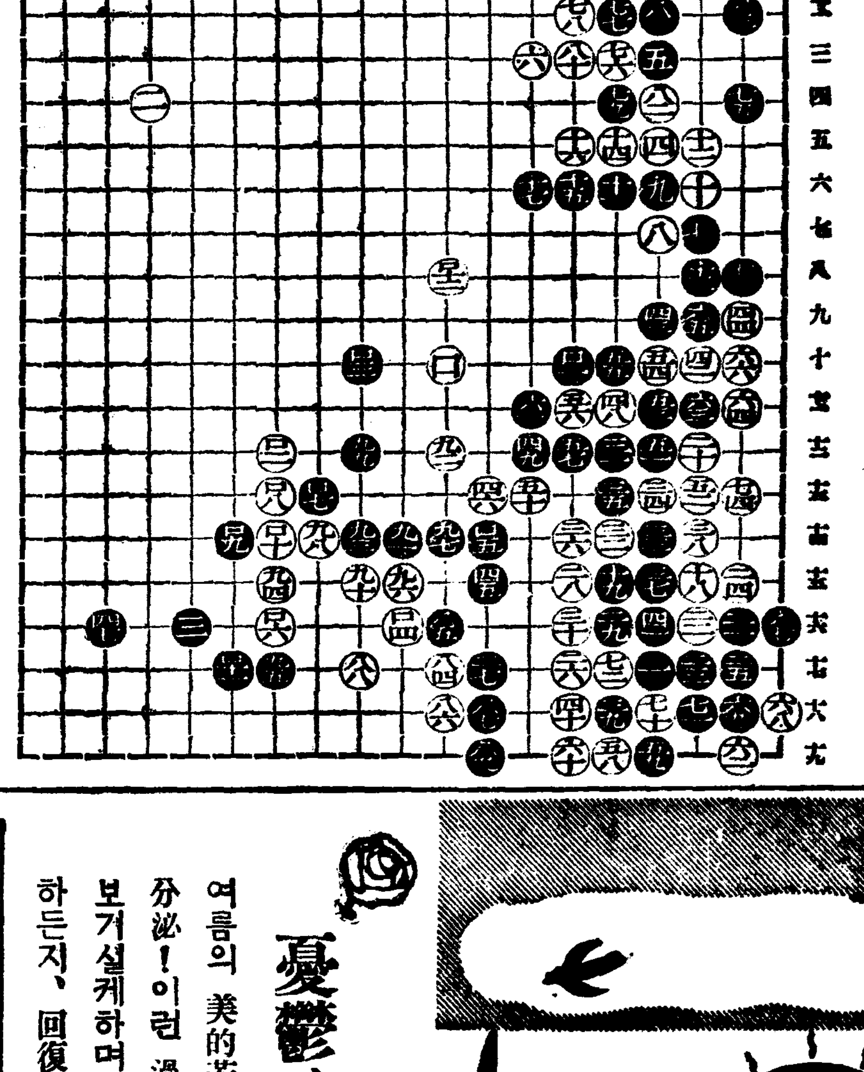
헐리우드의重稅恐慌

失業者救濟의 名目으로 칼리포니아州議會에서는 高率所得稅賦課가 決定될모양이라 헐리우드映畫人들은 그 阻止運動으로 한참야단인판에 給俐한名프로듀서인 다릴·사나크氏는재바르게도 今年中 헐리우드가 맘대로 이사를 가리라고 斷言하고 本來부터 自己州內에다가 헐리우드를 建設하려고 猛烈히 活動하든 플로리다州는 千載의好機가 到來되엿시 떠들고 잇다。 實際로 헐리우드의 映畫人들이 重稅의 脅威를 밧고잇는 것은 事實로서 莫大한俸給을 밧고 잇는 스타들은 헤롱네 몰르게 되니 말레네·뒷드리히도 아메리카에 映畫를배이는 것보담은 稅金이 싼 歐州로가는것이 낫다고 悲鳴을지르고잇다。 지금 헐리우드는 바야흐로 恐慌時代다。 올레스·피아리는 가외의 一本을 더出演하야 十萬弗을 바덧는데 그때문에 더 무稅金은 八萬五千弗이라 結局 거의 공으로出演해준 폭이 된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丁奎泰 黑先 柳鎭河

●九七 壬의十四 ○九八 丑의十四 ●九九 子의十二 ○一〇〇 壬의十 ●一〇一 己의十 ○一〇二 寅의十二 ●一〇三 子의十 ○一〇四 癸의十六 ●一〇五 辛의十四 ○一〇六 寅의十六 ●一〇七 丑의十三 ○一〇八 寅의十三 ●一〇九 卯의十四 ○一一〇 寅의十四 ●一一一 卯의十七 ○一一二 壬의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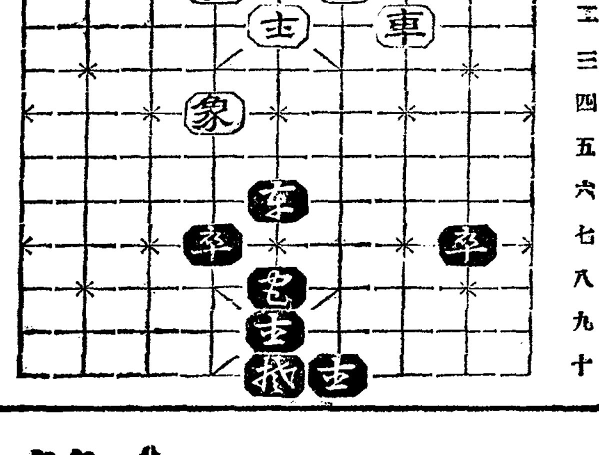


蔡極文氏評曰 白은 左右挾攻하고 黑은 從間道引出하니 奇觀壯觀이다 謀不應初요 事雖圖先이나 一場風雲에 鹿死를 誰知오 留待慧眼者一覽하노라 黑이 卯의 十七은 遺却하고 癸의九로 白包圍가大端有效함을 默想하노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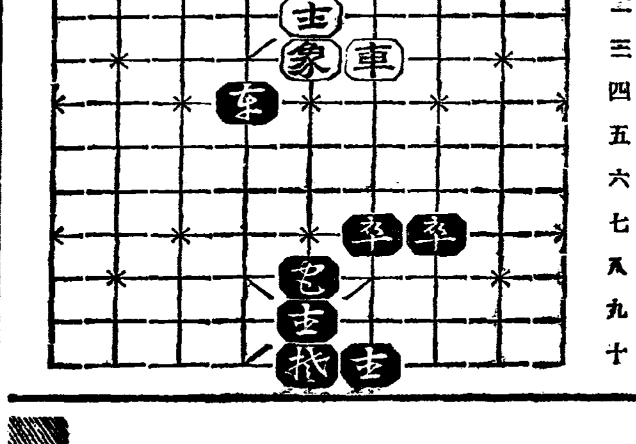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百二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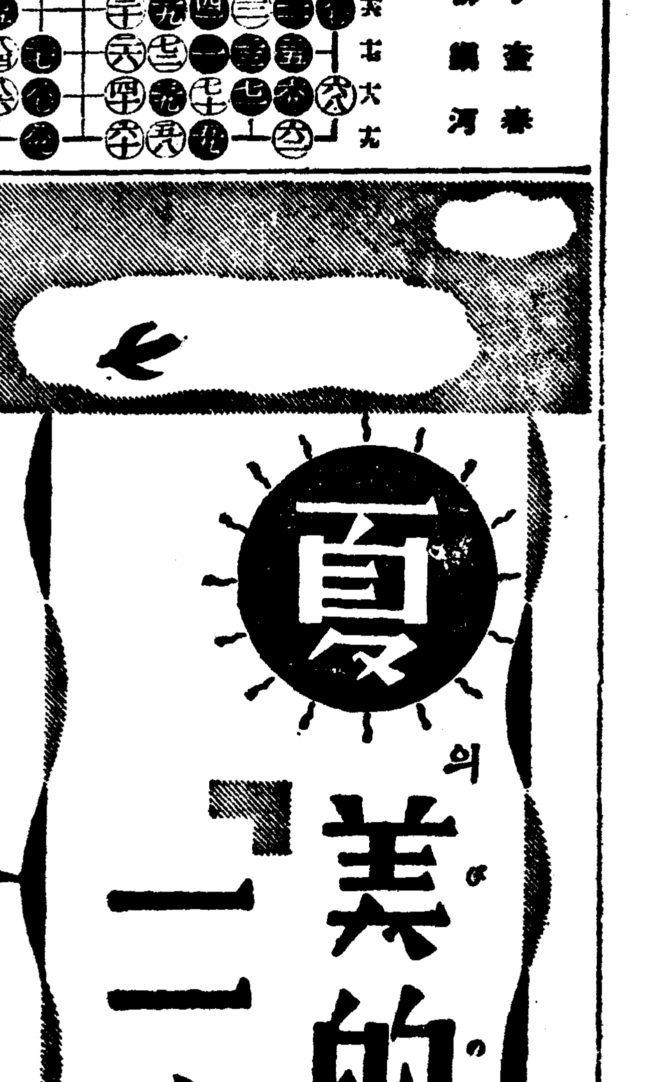


◀百三十手圖▶

戊六卒—戊五 己四象—辛一 己七包—戊七 辛一象—戊四 戊七包—丁七 丙二車—丙四 乙七卒—丙七 丙三車—丁三 戊四卒—己四呼將 己二漢—戊一



夏의 美的惱み



憂鬱한過剩脂肪

여름의 美的苦悶과 旺盛한皮脂肪의 分泌!이런 過剩한皮脂肪은 化粧을 보거실케하며 또는 化粧이 물니게 하든지、回復되기困難한

惡質의 벗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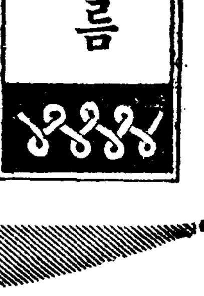
을 이르키면 그對策은!그에다過剩한脂肪만을 緩和하게 吸收調節하는 微妙한作用이잇는活性特殊白味劑를 巧妙히 復合粒粉에配伍한 마스타ー홈ー팩트와오ー클·마스타ー를 常用하시라。그리고 基本美肌劑스킨·호르몬性라세란이라고하는、皮膚細胞에 榮養과活力을 給與하는老廢物을 排泄하는作用이強한 美肌劑도 配伍되야이숨으로써

▲기름이 돌지안는 淸新한 化粧이 되며

▲여드름·부름等이 생길염려업고 彈力잇는 살결바탕을 갓게됩니다 等…女性들로부터 歡喜와 信賴를밧고잇는所以입니다

기름끼돌지안는 二重色化粧

色味로나 種類로나 딴두가지의化粧料로 立體的調和를 지여내는…어러케 一讀할뿐으로서 무엇보다 爽快하고 新鮮한感觸을 늣길것입니다! 이런魅力잇는化粧法이 모ー드의 王座二重色化粧이됩니다。于先살결리를 除去함에는가장 適當한粘調度에 마츰한 榮養에豐富한 마스타ー콜ー드를바르시고、마스타ー一番化粧液 어든지 三十番化粧液을 카ー제나脫脂綿에올여가지고、가벼웁게 콜ー드를 씨슴시다。다음에 爽快한色味의 白粉크림、오ー클·마스타ー를 두뻠에 조곰식찍어두고、그것을 손끈으로매만질너골골이 먹입니다。그리고 눈、입、이마人周圍를 카ー제로 가볍게씻고 다음에는 홈ー팩트의가자요 色을 힘주어매만지고 꼿녀면 눈섭·속눈섭·눈섭멋해 白粉에부튼것을따울로 씻습니다、그 다음에 마스타ー 연지·입술연지·눈섭묵을 그리고、다시홈ー팩트를 바른 우에『분첩』으로톡톡매만지면 化粧이 整然하야 스마ー트하게됩니다、이것으로立體的二重色化粧이되엿슴니다。좀 익숙케되면 二三分에 充分히 活性特殊白味劑가過剩皮脂를 適當히 吸收調節함으로써、따른化粧보다 훨신 오래가고 기름끼돌지안어、여름化粧으로서는 조女性들께 큰 歡喜와 信賴를밧고 잇습니다。



マスターパクト ホーム

驚異!偉觀의一大豪華映畫 終週間

六月二十六日부터超特別大興行 米마스코프로超大作全發聲映畫 巨匠알만드·시에파ー氏大作 流線怪盜列車 最終解決篇八卷上映 疾風兒조우엔氏渋死的主演 샤ー레그레이氏助演

코럼비아特作全發聲日本版 알바ー드ー컬氏監督作品! 空中殺人光線 벨프·배라미ー 우이리보스도ー 主演 蒼空에放射되는殺人光線의怪焰은 利權爭奪의殺陣에狂躍亂飛하는飛機에어린다蒼空의紅焰!爆擊!墜落!阿鼻叫喚!

大都映畫特作時代活劇篇 白井戰太郞監督! 疾風蝴蝶 終篇 近衛十四郞 主演 三城輝子 助演

次週三十日부터 朝鮮名畫 무지개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無說明映寫)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리챠ー드·뽀레스라부스키監督 聲樂王로렌스·티베트主演 메추포리탄 (Metropolitan) 비러赤盤藝術家로紐育메추로포리탄劇場顧問빠리톤·三十五年度世界오페라歌手의랑킹스第一位獲得한티베트가마음것銀幕을뒤흔들면서萬雷의拍手에싸일待望의最高音樂映畫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天才少女쎄·원서朝鮮에데뷰!! 나는우리집귀재롱꺼리 (Ginger) 兒童映畫의넘버원、自然的絕讚下에只今에폭스의人氣와못지안은新進天才의登場!!눈물과웃음의交錯!!

◆日活超特作映畫 綠の地平線 前篇 一(次週封切)(三日) 오페라劇、뮤직끄라운드、텔폼의變國者、로맨스乾盃

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當る廿四日特別大公開 每日晝夜三回興行 上映時間表

	一回	二回	三回
ニュース		三、四〇	七、〇〇
安兵衛十八番斬り	一二、三〇	三、五〇	七、一〇
街の艶歌師	一、〇四	四、五〇	八、〇〇

新興キネマ提供 高田プロ大合同製作 原作 村岡義雄 監督 牛原虛彥 脚色 村上德三郞 オール·トーキー 街の艶歌師 高田稔 マーガレット·ユキ 主演

新興キネマ提供 寬プロ本年度超怒級作 原作 實說『中山安兵衛』より 監督 益田晴夫 撮影 野村金吾 オール·サウンド 安兵衛十八番斬り 嵐寬壽郞大熱演 嗣操(松竹)多多良純助(新入社)松本田三郞·荒木忍·大西卓夫(新興) 外寬プロ總出演次週三十日特別短期名畫祭◇

永樂町 電話三五番 中央館

六月二十五日부터晝夜 東劇座公演第四週

林仙圭 作 洪水前夜 一幕四場

죽엄으로써위협한災難을通하여본人生의裡面、우러야할까、우서야할까、悲痛을지나치는곳에人生에게는눈물조차마르는最大의悲劇이오는것이다 보라!이悽慘한光景을 洪水、죽엄、人生!!

出演 卞基鐘、李敬煥、河芝滿、梁海天、金英淑、金富林、其他總出演

金剛 作 地下室과人生 全二幕

朝鮮의라한-엑、地下室에모힌天才들은그날그날의糧食에도굶주려가며不運에울고希望에불타는가매을안고다만『사랑』이라는샛발안두물재며해人生行路를旅行하고잇다 野卑한人間의一面相과父性愛가交錯되엿다 運命을우리는어떠케보아야할것이가!!

出演 朴昌煥、韓一松、孫鍾成、朴英秦、金基成、朴德彬、徐玉石、李澗玉、其他

花園驛人 作 喜劇 貸借關係 一幕二場

西大門町 電話光二〇三番 東洋劇場

萬餘町步遂斷念 代用作物을準備

咸南道에서各郡에調查를依賴

近萬의災民生途憂慮

【咸興】벌서이앙기를 일코잇는 함남도에서는 미증유한 장귀한 봉변하야 논에물이말라 전부 이앙을못하고잇는 면적이 작으만치 일만삼천여정보의 다수에 달한다고함은 긔보 하엿거니와 이에대하야 함남도농무과에서는 심기는 되엇다하더래도 금후에 이를뿐이라도 이앙할수잇는 면적은 불과오천여명 밧게는더못되며 전혀손을 대일수업시 그냥묵일수밧게 업는 논이일만삼천여정보나 되리라고 예상하고잇다는데 그페농하게된 일만삼천여정보의 대책으로는 전작물로대작(代作)케하리라하며 지금에대작할 작물로는 교맥(蕎麥)과대두(大豆)이외에는 더업슴으로이십육일 관하각군에 대하야 현존(現存)한 교맥대두의 종곡의 수량을 조사하라고 통달하얏다는데 만일 일만삼천여정보의 파종에 소요될 종곡이업다고 하면 급히 북해도 지방에서라도 주문하야 배부할터이라고한다 그런데 지금은 논에 물이한점도 업슴으로 이와가튼 전작물로 대작하야도 발육은할것이지만은 강우긔(降雨期)를당하면 다시수전(水田)으로회하게될것이며 대작하얏든 작물도수침(水浸)하야 업서질것이 어김업는사실이니 결국대작은 큰효과가업스리라고보며 일만삼천여정보는 필경 사실상페농할수바게업다는데 그에따르는 만여명의리재민의 생도가 벌서 념려되다고한다

朴復來氏美擧

【扶山】충남부여군 량화면 초왕리(扶餘郡良化面草旺里) 박복래(朴復來)(三○)씨는 극빈자의 처지에 동정하야 본면내의 삼백여호에 제일기호세 일백사십여원을 전부 대납하얏다는바 일반면민은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各◇地◇雨◇信

木浦方面에는— 三十粍乃至五十粍 아즉도不足之歎不無

【木浦】전남목포지방일대는 작년미증유의 한재로 일반농가의 생활상태는 극난한처지에서 아우성을치는차제에 또다시 살인적한발이 계속하야 묘판(苗板)은귀열되고 음료수까지 부족한곳이잇서서 일반농가의 인심은극히흉흉하든중 지난이십륙일밤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야 동이십팔일까지 계속하고잇스나 우량(雨量)은 겨우사십오미리내지 오십미리바게 되지아니하야 이앙(移秧)에는 삼사할의우량바게 아니되다고 좀더계속하야오기를 갈망한다고한다

青陽方面에도 甘雨繼續降下

【青陽】작년겨울부터 한재가심하여 대소맥이 삼할이상이감수되엿고 심지어 식수의곤난이심하며 묘옴기기가 느저가서 인심이매우불안하든중 지난이십칠일오후열시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여 일반이대단깁버한다고한다

江景地方엔稍洽足 九割以上의移秧

【江景】충남강경부근은 지난이십칠일 오후칠시경부터 세우가나리기시작하야 그이일오전오시경부터 상당히내리여서 강우량십칠미리에 달하엿슴으로 강경평야는 전부이앙을 시작하야 약구할상분이나 식부되야 수운은 것지엿는바 벌곡 두마 양촌(伐谷,豆磨,陽村)등의산간지대만은 아직충분한 강우라할수업는형편으로 이앙오할에 불과하다고한다

天安地方에는 旱魃完全解消

【天安】가믈에 가믈을더하든 근년희유의 큰한발은 련상일간날이흐리여 거문구름만 오락가락하야 사람의마음만 한층더감질내든것이 이십칠일오후부터 비방울이 듯기 시작하야 이십팔일 오전삼시경부터 본격적으로 퍼붓기 시작한다 삽할가량의 이앙이잇섯스나 거의타죽게되여 금년년사는 절망에빠지게된 요즈음 이와가티 비가나림으로 일반농가는 희희만면하야 이앙에분주하며 아즉도계속하야 대량의 비가나림으로 이번비에는 천안군수답전면적을통하야 완전히 이앙될줄예측된다고한다

勝地智異山開發의 施設促進猛運動

大學關係當局에陳情

【求禮】세상에서 이미알리아는바 지리산(智異山)옛날 중국에서는 삼신산의 하나로 방장산이라일럿고 조선에서는 오대악의 일로 남악산(南岳山)이라하엿스며 이밧게도 홍운두류산(頭流山)혹은 방호산(方壺山)등등의 아호를가지고 역사적고적지로 또는 명승지로도 유명하려니와 현재무진장으로 울창한 천연림과 여러가지의 자원개발은 경제적으로도 절대의가치가잇고 그대관문이되는 구례지방의 발전에도 중대한관계가잇슬것이므로 향일 우원(宇垣)총독의 동지시찰을과하야 구례번영회장과 동도의원은 전구례군민을 대표하야 지리산의개발시설과 동시에 국립공원(國立公園)지정에 대한 요망은 진정한바잇섯는데 화엄사(華嚴寺)와밋그절안에잇는 각황전(覺皇殿)은 조선 삼대건물의 하나인데 방금 십삼만원의 공사비로 수리중에 잇는것과매년 사오백명의 서양인 피서객들이 피서하고잇는 양인촌인노고단(老姑壇)상까지를 실재답사한 우원총독도 봄 가을로는절호의 유람지요 여름피서지로는 조선제일에가는 최적지이몰 찬탄하야 마지안햇다는데 방금 총독부에서 회의중에잇는 도지사회의를 긔하야 이남국의 자랑으로 천하의 명승지요 무진장의자원인 지리산의개발시설과 등산림간도로 축진에대한요망을 구례군민들은 지난이십오일부로 근등(近藤)전남도지사와 길전(吉田)철도국장과 우원총독을 위시하야 각관계당국에 전청하엿는데 금후도 이에대한 맹렬한 운동이계속되리라고한다

會寧公普校의 速修科實現

明春부터開始

【會寧】배와야 살고 알어야힘 하면 무수한아동[illegible]되는이때에 회녕공립 보통학교에서는 특히 학령초과한 아동을 위하야 명년도부터 동학교내에 이화년제 속수과를 설치하기로 금번에인가되엇는바 정원은 팔십명으로 보교 사회편에 배당하야과목을 교수하리라고한다

長津水電工事場에서 다이나마이트爆發로 七名重輕傷騷動

【咸興】지난이십오일 함주군하기천면동흥리(下岐川面東興里)장진수전 제이호발전소 축도제이항(第二發電所隧道第二坑)입구에서 돌연히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야 부근에서 점심을먹고잇든 목수 야공(冶工)등 칠명이 중경상을 입엇다는데 이러케폭발된원인은 그날오전중 목수김원진(金元鎭)(三七)이란는 사람이부근에서 다이나마이트를주어 자그 연장궤(道具箱)에 두엇다가 그만 실수하야 그를발버드디여 그와가티 폭발된것인데 피해자의 씨명은 다음과가든며 즉시수전회사병원에 입원가료중인데 모다생명에는 별조업다고한다

木手 金元鎭(三七) 鍛冶業 劉長三(二七) 同 鄭泰龍(二五) 同 高在斌(二九) 同 劉近禧外一名

僞造紙幣發現

【開城】작년십이월 개성시내에는 대규모의 지폐위조단이 일망타진된이후 한동안은 잠잠하드니 요지음 또다시위조지폐가 도라단인다 지난이십일 조선식산은행 개성지점에서는 줌납게원이 십원짜리지전을 세이다가 위조지폐한장을 발견하고 개성서로 넘기엿다는바 일반상민은 금후 금전거래시 특히지폐를 주의해보기바란다한다

地方人事

▲金潤永氏(鎭江沿岸防水堤陳情委員)去廿七日午後十二時北行車로 京城向發
▲閔丙宵氏(同上) 同上
▲鄭駿氏(本社長城支局長)局務를帶하고 廿八日入京 公平洞民興旅舘投宿
▲李敦鼎氏(本報金浦支局長)赤十字病院에入院治療中 六月廿七日退院歸局

大規模의電線窃盜 一團七名을打盡

咸興、元山、興南을中心으로 六百餘米突을窃取

【咸興】근래 함흥부근일대에는 송전선(送電線)의절단절도사건이 극히 자주이러나 함흥서에서는 그범인을 예의내사중이든바 매축전함주군운남면구자교(咸州郡雲南面九子橋)부근에서 일단칠명으로된 소변절도단을 일망타진하야 엄중취조한결과 일단은이십여명가량으로 금번오월 하순경부터 운남송전선(雲南送電線)어치를 루백미돌(시가칠백여원)을 절단절취한것을 비롯하야 원산 정평 홍남하긔천면등지서 수회에 이전여원어치의동선(銅線)을 절취한것을 자백하얏스며 아직도 그일당으로잇든 소변으로서 체포치못한것이 십일명이나 된다고하는데 근례에드문 대규모의 전선절도단이라고하며 취조에따라서는 여죄도상당히잇슬모양이라고한다

三湖濟宣學院에 院舍基地喜捨

徐應範氏美擧

【三湖】삼호의 유일한 무산아동교육기관 삼호제선학원(三湖濟宣學院)은 재원이업서 당지시천교소유의집을 빌어 교수하여 오든바 유지 리수봉(李壽鳳)씨의 특지로서 보통학교 구건물을 사게되엿스나 기지가업서곤난을 늣기고잇든중 지난이십팔일 삼호유지 서응범(徐應範)씨가동합원 리사 서이식(徐○植)씨를 통하야 방문하고 자기소유의 밧(田)구백평을 (時價四百五十圓) 교사신축기지로 제공한다는 동을전달하엿슴으로 그학원에서는 긴급리사회를 개최하고 정식수리하는한편 동씨에게 그감사의뜻을 대표를 즉시파견하야 표하엿다는데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愛慾의彼岸 【37】

李光洙 作 金康穆 畵

김장로부인은 마츰내 입원을 하엿다。어차피 죽을 사람이나 병원에 가서 죽게하는것이 조타는 김장로의 판단으로엇다。

병원에 입원은 하엿지마는 의사는 수술하기를 원치아니하는 모양이엇다。그래서 용태를 보아서 한다고해서 하로 이틀 끄는것이 일주일이나 넘은 뒤에야 본인의 앙탈로、또 김장로도 동의하여서、위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되엇다。거의다 썩어문들어지다십히한 위를 떼어내고 식도와 창자를 마주매어 노코 나서 의사는 휘유 한숨을 지엇다。

수혈을 할 필요가 잇다고 해서、문임은 마침 혈형이 김부인과 맛는것을 다행으로 피를 두곱부나 떼어서 김부인의 혈관에 너허주엇다。

『이런 때에는 수혈이 쇠소리가 나는수도 잇건만은』

하던 의사의 말이 요행 마저서 김부인의 수술후의 경과는 매우 조흔듯하엿다。김장로는가끔 병원에 부인을 차자갓다。

『어떤 모양이요?』

하고 김장로는 과장선생에게를 엇다。

『글세 아직 갓타서는 경과는 조흔신 모양입니다 마는 원체 쇠약하엿스니까요』

하고 과장은 장담은 아니 하엿다。

김장로는 과장의 말을 듯고는 한숨을 쉬엇다。그것은 남에게는 안해의 병을 걱정하는 한숨이오 김장로 자신에게는안해가 살아날까보아 근심하는한숨이엇다。

『아무래도 완인되기는 어렵지오?』

하고 김장로가 다시 못는 말에、과장은、

『노인이니까요』

하고 구찬은드시 가버렷다。

안해가 완인 되기를 바라는 김장로는 아니다。

『영감。인제는 살아난것 가타요』

하는 김부인의 말에、김장로는

『잘 조심을 해야지』

하고 그래도 벼개도 고처베여 주고 이불도 바로 덥허주엇다。

김부인은 그래도 살아나려니 하는 모양이오、살고십허 하는 모양이엇다。간호부들을 붓들고

『위를 떼어내고도 완인이 되어서 오래사는 사람이 잇소?』

하고 몟번이나 물어서、

『그럼은요。잇구말구요』

하는 간호부들의 말을 듯고는 혼자 만족해하엿다。

김부인은 과장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랴고 회진할 때마다 물엇스나、똑한과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아니하엿다。그것이 김부인에게는 걱정이엇다。

그래서 한번은 차자온 남편을 보고、

『여보시우。과장선생보시구、내가 이러구두 완인이 되어서 오래 살수가 잇나 좀 물어보아 주시우』하고 청을하엿다。

김장로는 속으로는 픽웃으면서

『내가 벌서 물어보앗서』

하엿다。

『무어랍듸까。날들두 나가리 수술을 허구두 살아나서 완인된 사람이 잇다구?』

하고 부인은 더욱 간절하게알고시퍼한다。

『살아날 사람이 잇길래 수술들을 허지』

하고 김장로는 불쾌한 빙줄더 갑출수가 업섯다。

『영감이야 내가 어서 죽기를 바라시니깐。그것이 미워서 심사루라두 더살걸。한팔십 되두록 살거요』

하고 부인은 화를 낸다。

『마음을 편안히 가저야 병이 낫는대』

하고 김장로는 책망하는 드시 웨친다。

김부인은 의사의 말도 마음을 편히 가저야 병이 낫는다고 하므로、남편에게대한 화리를 그치고 눈을 감고말앗다。

김장로의 가족은 번 갈아서 병원에 와서 김부인의 간호를 하엿다。낫에는 며누리가 오고 밤에는 혜련이와 문임이가 오고、김장로는 잇다금 오고。한번은 친모가 온것을 보기실타고 김부인이 쫏차버렷다。

독매

매독근치세계적명약 ネオ、スピロヘン 藥價 五圓 七圓 京城鍾路 大同製藥社

下痢·腹痛에 定評엇는 ヘルプ 헤루푸

主効 過飲·過食 食傷·水傷 寢冷·冷腹 時候不通 消化不良 等으로:

체한배 아푼배 역할때 뿔는배 땡기는배 腸가다루 胃가다루

定價 二十錢 卅錢 五十錢 一圓 三圓 六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經濟解說

米國經濟立法 ⑦ 今年議會通過內容

◀軍人恩給法=米國議會의開會마다 每年 提出되나 每番 成立되지못하여왓다 今年도 上院財政委員長파트·하리손氏의 提案이 一月二十日에 上院을 通過하고 同月二十二日에 下院도 이것을 可決하엿스며 루즈벨트大統領은 同月二十四日 그裁可를 拒否하엿다 그런데 下院은 當日에 이것을 再通過하고 上院도 同月二十七日 再可決한結果 畢竟法案은 成立되야 一新時期를 劃하엿다 이에 依하야

(一) 米國의 出征軍人은 그所有하는 恩給證書를 小額債券으로 바꿀수잇게된點

(二) 그小額債券은 郵便局에서 다시 現金으로 밧꿀수잇는點

(三) 小額債券의 額面은 五十弗, 期限은 九個年으로 年三分의 利子가 붓고 또 恩給證書의 保有를 繼續하는사람에게는 九年間 三分의 利子를 붓치게된點

이法에 基하야 最後의 支拂을 끈내기까지 要한 金額은 二十四億九千百萬弗로槪算되엇다 恩給證書의 小額債券引換은 이미 지난六月十五日부터 規定대로 시작되엇다.

×

◀稅制改革案=一月六日의大統領教書에는 豫算收支의均衡을 圖하고 自然增收에 期待하야 新課稅乃至增稅를 必要할수잇는대로 避할 方針이라고 明示하엿는데 그뒤 農業調整法違憲判決로 因한 加工稅收入不可能과 軍人恩給法 實行에基한 支出增加의 結果等으로 增稅의 必要를 늣겨 提出된것이다 그래서 三月三日의 特別教書로 議會에 보내여 만흔 曲折을 거치가지고서 議會閉會直前의 六月二十日 겨우 大統領의 손에 廻附되엿다.

×

◀土壤保全法修正法=一月六日의 聯邦大審院判決의結果 農事調整法과 그修正法이 違憲으로되야 그代案으로 一月廿日 議會에 提出되엿다 法律의 形式으로서는 一九三五年四月廿七日 大統領裁可의 土壤保存法의 追補修正이란 形式을 取한것으로 法案은 二月十五日上院通過 同廿一日 下院通過, 兩院案의 相違點에 對하야 兩院協議會를 거처 三月一日 大統領의 署名을 끈내엿다 法律의要旨는

(一) 地味不完全한 土地에 農業經營 即 商業的作物을 심지못하고 此等의土地에 土壤保全키爲한 作物을 심게하는것

(二) 右方針에 基하야 土壤을 保全키爲한 作物을 심는農家에 補助金을 支拂

(三) 右方法에 基하야 農村救濟를 비롯하야 二個年은 聯邦政府의일로 行하고 二個年後는 聯邦政府의 農作物統制를 實行하는 州에 對하야 本法에 基한 助成金을 交附 等으로 本法을 施行키로 되엇는데 資金의 捻出이 問題로 政府는 本法發布後 三月上旬地方農村大會를 열고 그 當局의 徹底를 期하는 同時에 그實行에 드러갓다.

×

◀砂糖統制法延長決議=農園法違憲의 判決에 따라서 一九三四年 制定한 『코스티간·죤스』砂糖統制法에도 違憲의 念慮가 잇서 그點을 修正하야 同統制法을 强化하여 必要가 생긴 때문에 提出한것으로 結局『一九三六年度 配定制를 有効하다고 判決하고 이것을 一九三七年度에도 繼續實施케한』 이라는 決議의 形式으로 議會를 通過 六月廿日 大統領의 署名을 끈내엇다 이決議는 何等의 新砂糖統制法이 考慮되기까지, 暫定的으로 現行의配定制를 施行케하라는것이다。

×

◀農村電化法=一九三五年五月十一日附 大統領行政命令으로 設立된 農村電化局을 恒久化하고 電力의發達不完全한 地方에 電力生産工場을 建設하고 또는 送電線을 架設하라는 (公私非營利團體에 融資키爲하야) 앞으로 十個年間 聯邦政府로부터 支出한다는 法律로 五月廿一日에 大統領의署名을 끈내엇다 이로因하야 政府가 앞으로 十個年間에 支出하는 金額의總計는 四億一千萬弗。

—(完)—

京城土地市價 過度昂騰訂正?

建築令關係其他로騰勢를阻止 銀行擔保評價水準으로

近年京城市內는 所謂 집장사들의 黃金時代로 垈地가 큰것을 사서 줄행낭식으로 거의空地업시 家屋을 新築하야 法外의高價로 팔어서 總投資額의 倍以上의巨利를 보아와섯는데 大京城實現後 그勢가 더할모양이엇스나 四月以來 實施된 市街地建築令에 依하야 建築手續이 複雜하게되고 土地와 建物과의關係規定의 適用으로 空地업는집을 세울수업게되어 집장사의巨利가 어려웁게 되엇슴으로 新家屋의 建築熱도 식어가고 따라 市內土地價도 最高價에比하야 一割乃至 三割程度의 低落을 보이고잇는바 이제로부터는 銀行擔保評價水準以上의 地價吊上은 訂正케되리라고한다

自作農創定 豫定計畫遂行

地價의 昂騰에依하야 豫定計畫이 遂行難에빠저는바 이自作農創定計畫을 擴充할것이냐 縮少할것이냐하는데 對하야는 這般의 道知事會議에서 各道의 實情을 基礎로하야 論議되엇는데 論議이 區區하야 解決을보지못하고 結局農林局의 裁斷에맛기기로되엇다 그리고 農政課에서 目下 對策을 考究中이든 豫定計畫遂行이 有力하다한다 即 現在의 地價高가 繼續되면 創定資金 六百六十圓을百五十圓 程度로 增額할 必要가 잇스며 그 年賦償還金은 年額 八圓의 增加에 끗치게하야 이程度의 것이면 創定農家로서는 큰影響도업슬것이로 貸付資源만 融通되면 豫定計畫대로 遂行할 意向이라고한다

米生産과 現在、移動 三大調査協議會

米穀自治管理法施行에伴하는 米穀의生産 現在 移動三大調査를 압두고 各道農務課長會議는 二十九日 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山澤農産課長統裁알에 열고 먼저 矢島農林局長의訓示가잇슨뒤 山澤農産課長、石塚技師로 부터調査要目에 對하야 說明을 하고 具體的協議에 드러갓는데繼續하야 三日間連續協議할터이라고

朝銀首腦部에서는 緊急한重要協議

對滿通貨協定更改?

朝鮮銀行에서는 渡東中인 加藤總裁의 招電에依하야 二十八日 松原副總裁가 急遽渡東하고 橫瀨理事는 二十九日朝來 本支店支配人、各課長等을모으고 重要協議를 行하고잇는데 그內容은 嚴秘에附하나 滿洲中央銀行과朝鮮銀行의 滿洲國에서의 通貨協定은 實施後 半個年을 經過하야 順調로進行되고잇는데 今年十二月三十一日이 期限임으로來年以降의 協定을 更改키로되바 過般 田中日銀理事가 滿洲中央銀行總裁에 就任된後 田中總裁는 日銀의 意向을 體하야 滿洲國의 通貨制度를 根本的으로確立코저 하는 意向을 가지고 잇는것 가타야 朝鮮銀行과의 協定도 此際·更히 徹底的으로 調整코저 東京에서는目下機密裡에 協議를進行하고잇는모양이라고한다

米運賃協議會 結局論議가沸騰

朝鮮米運賃 改訂에關한·運賃協議會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于先 日本內地及朝鮮荷主의 懇談會로 시작되야 午後는 船會社側代表와會見한바 船會社側으로부터 現行運賃은 海運界의諸情勢로 보아 너무低廉하므로 十圓의 引上을 容認하여달라고 十圓引上을 要求하엿다 이에對하야 荷主側은 別로 意思表示를하지안코 船會社側의 退場을 求하야 前日부터 議論의 焦點이되든 運賃의 現拂問題에對하야 日本內地及朝鮮荷主의 協議에드러갓는데 朝鮮側荷主가 朝鮮米의 宗主權擁護의意味에서 運賃은 現拂로하라는 主張을 하엿다 이에 對하야 日本側荷主는 宗主權問題는 朝鮮側과가티 神經過敏이될 必要는업다 朝鮮米의 輸送上으로 보아도 運賃의 讓步이 조타고 讓步치안하여 論議沸騰의結果 朝鮮側으로부터 이問題를 愼重히 考慮하것슴으로 今後 一個月間을 猶豫하라고 하엿슴으로 이에對하야 折衷案으로 一年은 現拂로하고 一年은替拂로하야 一年交替制를採用하는것이어떠냐 하는 意見이 提出되야 結局何等의 決着을 못보앗는데 大體이問題는 右一年交替制를 採用하는것으로 妥協되리라고한다 그리고 二十九日은 午前十時부터 荷主만 會合協議하야 運賃現拂問題가 解決되면 午後부터 船會社代表와 會見할터이라고한다

朝信의再利下 七月一日現在

朝鮮信託會社에서는 日本內地信託의利下에 追隨하야 信託配當의一回利下를 하기로되야 七月一日부터 二厘를내린다고 廿八日의總會席上 谷社長이 言明하엿는데 利下後의 信託配當率은 다음과 갓다

二年以上	四分六厘
一年以上	四分四厘

朝信六分配可決

朝鮮信託에서는 廿九日午前十時十五分부터 銀行集會所에서 定期總會를열고 韓相龍會長議長司會알에

一、第七期諸決算案承認의件

二、第七期利益金處分案에關한件

三、故監查役權野勘氏의 遺族에 弔慰金贈呈의件

을 附議하고 一、二號案은 可決 三號案은取締役會一任으로決定한뒤 同三十五分 散會하엿는데 株主配當은 年六分라고

郵便振貯受拂

全朝鮮各郵便局所에서 取扱한 五月中郵便振替貯金의 受入金額은 四千八萬六百六十七圓이며 또 拂出金額은 四千五十一萬二百八十九圓인데 五月末現在의 加入者總數는 三萬三千四百二十五人으로 預金額六百六十二萬四千五百八十四圓인데 그內容은 다음과갓다

	加入者數	預金額
京城	[illegible]人	[illegible]圓
釜山	[illegible]	[illegible]

朝鮮織物總會

朝鮮織物會社에서는 二十八日第七回定期總會를열고 利益金 處分案(一分減의五分)을可決하엿다고

大連銀價昂騰 金建의消滅로

【大連電話商通】大連取引所特産市場의 金建採用은 一面錢鈔市場에 致命的影響을 밋치게할念慮가 잇는때문에 그實現이不可能케되야 그結果 二十九日아츰의 大連銀定期는 百圓八十錢으로 休日前의止價에比하야 八十五錢이 昂騰하엿다

魚油定量入札

六月分三圓七十八錢

魚油共販의 六月分定量入札은 販賣數量八萬二千四百五十四罐으로 벨엔은 石鹼에 落札、落札價格은 三圓七十八錢이엇다고

取引停止 (六月二十五日)

◀京城府昌信町 高永基◀고무工業 ◀京城府新設町 金寅秀◀米穀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番地 金英鎬

經濟界消息

◀中旬製造煙草賣渡=專賣局六月中旬의 製造煙草賣渡總金額은 百二十九萬一千百八十九圓으로前年同期分에比하야 十六萬一千六百七十九圓 一割四分三厘의增加엇다

○朝石原油元山入港期=朝鮮石油의 元山工場은 來月初操業을 開始키로 되바 原油는 飯野商事의 東亞丸(三、五〇〇噸)이 北米캐를니아原油 一萬二千噸을積載하고 七月四日元山에 入港하엿는데 第二船은 八月中旬에入港할모양이라고

經濟寸鐵

○市街地建築令實施로 黃金時代이든 집장사 頭上에 加一棒 그동안 엔간히 주머니속이 불럿섯지

○米運賃協議會는 連日開催 所謂宗主權이 問題라나 朝鮮사람과는 相關업는일 權을 암만 떠들어도

○어떤技師가 農民系 硏安會社를 硏究中이라고

○一個技師의硏究로만 될일이 아니오 이런事業은 모름지기 官營으로 하라

旱魃의對策 棉花增產計畫

農林局에서는 旱魃의根本對策으로 天畓의 地目轉換을 徹底的으로 行하는 同時에 棉花增產計畫의 一大擴充을 하야 現計畫의 四億二千萬斤目標를 四億五千六百萬斤으로 引上키로되엇다 即昭和十七年으로써 完成豫定의 現計畫은 作付面積 三十五萬町步 實棉收穫四億二千萬斤을 目標로한바 十二年度以後 三萬六千町步의 地目變換을하고 棉花를 栽培하야 三千六百萬斤의 增產을 하라는것이라고

重要商品界事情

"生絲需給" 七月在荷增

七月의生絲入荷增加로 그需給이 얼만한 程度 緩和될가 必然的으로 오는實物의 增加가市況의實態에어떠케影響이 밋칠가하는 注目되며 따러서 七月入荷如何가 問題視되는데 諸情勢와 市場의見解를 綜合하면 例年七月보다는 적다고觀測되다。먼저市場의見解에依하면 만히 보는사람은 大體五萬四五千俵、적게 보는 사람은 四萬六七千俵의 말도잇고 그中間說은 五萬俵로五萬乃至 五萬一二千俵의觀測이 가장 만타。

◇

昭和七年으로부터 昨年까지의 七月入荷는 八年의橫濱神戶合計六萬七千五百七十七俵半이 最高로 七年의五萬三千百九十俵가 最低、九年과 十年은 五萬四六千臺인데 例年보다 然히 全條件으로(一)先約不振、絲數減、製絲家原料準備減、(二)現在의値頃으로는 採算不良等이며 反對의條件은 解舒가좋고 豐繭으로 絲價의位置如何로는 五萬臺의支持도 危險視된다고한다。

◇

그러므로 五萬의入荷가 잇슬境遇의 需給關係인데 日本內地와 歐洲向으로 九千俵、米國消費中 日本絲三萬五千으로假定하면 그밖게 約六千俵가 內外在荷增으로 되다고……●

株式 反戾업시 崩落

商況 [廿九日]

前場崩落 政局不安으로賣人氣再燃하야 東新百二十七圓五十錢 日產六十九圓三十錢에崩하고 結局前週末에比하야 東新一圓四十錢低인 百二十八圓十錢 日產 二十錢低인六十九圓五十錢 大新二十錢低인七十圓丁 鐘新二十錢低인百五十四圓九十錢 朝取十錢低인七十三圓四十錢 朝新二十錢低인三十圓二十錢 拓新二十一圓六十錢에各大引

東新賣의心理 但國策非賣材料

가장不況인것이 東新이오 百圓소리가 常識化되어가는 모양인데 事業株는 比較的 堅調이다 今回東新賣의 心理는 東新그것에 全部의 原因이잇는것이 아니오 찰아리 大部分이 事業株에 잇는것이다 買過와 所持增加로困惱한 仕手가 依然히 事業株는賣放치안코 그대신 東新을賣하는 바下落의 動機가된 諸國策은이미 以上賣할 材料가 아니오 低價追擊은愼戒할 이라는말이잇다

弱氣의代表論

東新에對한弱氣의 代表論을들어보면 東新은 途中의曲折은잇겟지만 結局百圓으로보아두어 大差업슬것이오 그時期는百五十圓보다는百圓이 먼저 나올것이니 東新은 反發 一買이 得當하고 探算株는 押目을買할것이다 云云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illegible]◀大同電力新 [illegible]◀小田急 [illegible]◀帝廐新 [illegible]◀日滿아르미 [illegible]◀國水港糖新 [illegible]◀北樺太鑛業 [illegible]◀樺太石油新 [illegible] (取引一六〇枚)

東京國債市勢

【東京電話同盟】公債는繼續하야 不透明氣味이오 內債는四、五分利共히 五錢內外의 小動에止하고 佛貨債는 保付되고 實物市場은 小口의 賣物이 散見되엇스며 米貨債五分半은不變이나마 五時半은 二十錢下押이엇다

政局不安再燃 東新十圓棒下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東新百三十圓割로 買方의 棄投가 相當하얏고 東京百二十八圓八十錢까지에 整理가 一巡된 觀이잇서 百三十圓關門을 一時恢復하엿스나 戾賣物이잇서百二十九圓臺에 前場을終한바 今前場은 政局不安을 再念慮하야 百二十七圓五十錢에 賣叩되어 五月의 戾値百三十七圓八十錢에서 보면 完全히 十圓棒을 갈엇고 百二十八圓三十錢에 前場을終하엿는데 當地도七圓五十錢低價가 戾待에 無戾로 雲煙肺患的으로 漸落되는만큼 좀처럼 恢復에轉換될것갓지안은 實情인데 庶政一新의 國策을 審議할七月三日의 閣議는目下 株界의 重大 關心處인바 三長官會議에서 各省의 豫算參考程度로 하고 決定한 方針에 對하야 이는 各省을 無視하는것이라하야 政黨出身 閣僚中에는 猛烈히 反對하는 者잇서 國策一新을 앞두고 政局은 微妙한 空氣가 흐르고잇는만큼 陸相辭任問題와아울러 政局不安人氣가 再燃되는모양이다

後場一息 鐘新高로 또低價突込을 警戒하야 一息下文이엇스나 即東新百二十八圓二十錢 大新七十圓丁 鐘新百五十七圓丁 日產六十九圓三十錢에 各大引

大阪國債市勢

◀甲五分利 一〇三、三〇◀第三五分利 一〇[illegible]◀二二年 一〇〇、九[illegible]◀二八年 一〇二、[illegible]◀一回四分利 一〇二、[illegible]◀佛貨四分利 一〇[illegible]◀二回四分利 一〇[illegible]◀米貨六分半 [illegible]

◀甲五時利 一〇一、四五

◀一回四時利 一〇二、六〇

◀佛貨四分 一九八、四〇

米期 好雨來나 反强

前場少戾 再昨後場 阪地三十四圓〇七錢로止와 共히 三十一圓八十一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一休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〇四錢인 三丁反落을 박하고 三十一圓八十一錢인 再昨止와 同樣으로 場을始한後 二圓八十一錢에 앞서고 前場二圓〇三錢으로 〇四錢의五番同價로 止場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卅一圓九十九錢에 九十高로始場後 九十五錢에弛하고 다시九十八錢으로 九十一錢에 止場하다

雨後買物簇出 雨不足이原因?

揚子江의 低氣壓이 東方으로進路를 取하야 旱地朝鮮을 掩襲함에따아 南朝鮮의 雨量은 洽足한모양이나 中部以北은 아즉도 雨量不足으로 又復好雨를 顧來하기外에는 植付完了의 可望이엇다고 雨後의 買物이 簇出하야 東阪의 反落은 全혀度外에付하고 三十一圓八十一錢인 再昨止의 同樣으로 場을始한後十錢丁의 反高를 示함에至하엿다 今回의 雨量을보면 一昨日午後六時부터 今朝六時까지의 二日分이

◀釜山八九미리◀木浦三三미리◀全州四四미리◀大邱六二미리◀江陵五一미리◀京城三四미리◀仁川二二미리◀平壤二二미리◀元山五미리 等으로 北朝鮮의雨量이 不足하야 地方의實注文은 끈임업시 出하는光景이다 그러나 그反映으로는 地場側의賣物이 騰勢를 阻止하야 三十一圓八、九十錢臺를 維持함을보면 今後의 天候如何를 딸아 形勢左右될모양갓다

市場六感

株……下止되것하던 東新은 百二十七圓臺로 腐肉가리떠러젓다◀五圓戾價에서 十圓棒下戾待에無戾◀人心의 弛緩는世相의不安으로오것이오 이것을 東新市勢에示現하야 彈力을喪失◀外로는 各國獨自의 鎖國的關稅障壁으로 日本品을排斥하며 內로는擧國一致를떠나 人心은 不安의域을脫치못해◀이런根本的原因이 解消되지안는限 東新의人氣一新은 難望

米……期待하든 甘雨는全朝鮮을均霑한모양이나 中部以北은 아즉도 雨量不足으로 地方買物이 續出하야 當地市勢로보아서는 一端天井을演出한 觀이업지안흔것도아니라 地場側이 絕對賣買成을하고 잇슴으로 어떠한 機會를 利用하든지 一段瓦落을 告하고야 말것갓다◀그럼으로 買方針을 固執하기도 難할것갓고 又는 賣의事情이 事情인만치 安心賣도 亦難 結局傍觀者賢明이라 傍觀하기만不如?

今日財界 (廿九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一九一	一〇高
大阪期米 先限	三四五〇	八高
三等米 一石	三一二〇	一〇低
正租(仁川)一等	三二三〇	不變
一斤價 三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二匁賣	十三圓十錢	一匁賣 十二圓五錢
銀	九錢〇厘	十錢二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一	一
東新	三三〇	一五〇低
日產	六九三〇	四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人絹	[illegible]	一〇高
大阪砂糖	三五三	四低
고무FAQ	[illegible]錢	不變

當限一代記 步幅二百五十丁

今前場으로서 終幕을告한六月限은當時政府米五十五萬石買上發表와 共히二十九圓八十錢인 三十丁上騰로 發會한後 即時六十八錢까지 小押하엿스나 大體凶作後인만치 買氣依然潜在하야 三十圓〇三錢의 最高로 中限에入하엿다 當中限時代부터는 天災念慮의 人氣와 濃厚한 買야니라 產地農家의 絕對賣惜으로 買氣漸次熾烈하야 三十圓六十七錢의 高價를 示하더니 五月一日現在 日本內地殘存米의 發表가 四百八十八萬七千餘石으로 昨年同期에 比하야 二百五十三萬五千餘石의 減少이엇스나 發表前의 豫測보다는 比較的 增加를 示하엿다하야 二十一錢까지 反落하엿스나 그러나 쌀의 大體事情은 趨勢强氣를 胚胎하야 三十一圓二十錢의 高價로서 當限에 入하엿는데 同月은朝鮮旱魃의 買人氣가 旺盛하야 三十二圓二十錢의 最高價를 示하고 這般의 降雨와 地場賣彈側의 賣印로 三十一圓四、五十錢臺까지 反落하엿다가 結局三十一圓七十錢에 納會되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昨日의 全國的降雨로 旱魃念慮解消되고 移秧樂觀과 當限低로 賣氣旺盛하얏고 買方의 嫌氣投物이 나타나서 下放이엇스나 押目一巡으로보아 强氣의 買戰買가잇서 下文이엇는데 戾賣物潜在이다

◀賣方=東京側 中東側乘替朝鮮側

◀買方=播州側 地場週氣

大阪四市場納會

大阪綿絲、棉花、人絹、砂糖四市場은 今日前場으로서 納會하고 後場부터 明前後場共히 當限受渡로 例休이다

各地正米

京城少落

期米軟調로買氣挫折되엇스며 移秧樂觀人氣로氣配十錢低落인丸仁三等三十一圓六十錢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五十錢

仁川續落

日本內地取引이 中絕狀態에잇슴으로 全般的으로 買傍觀되고 겨우當用實需에緊外米가 買進될에不過하얏다 丸仁三等三十一圓六十錢四等三十一圓三十錢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釜山弱含

潤雨로 賣方의態度가幾分軟化되엇스나 日本內地의 買氣가아즉 回復치안음만큼 取引은 極少量에 限定되고 弱含이며 氣配는 角ㄱ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八錢

大邱奔落

日來의 降雨로 移秧에 支障이업다고 樂觀되어 思惑的所持側의 態度가 軟化되고 賣行極端不振인만콤 唱은一擧의 四十錢奔落을 告하얏다 角ㄱ三等 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群山軟弱

一齊히 降雨로 産地의 人氣幾分緩되엇스나 아즉

木浦同調

定期의凡調로 買氣不深하야 休日前보다 十錢低落配이엇다 丸木三等三十一圓八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相當히 多量의降雨로 移秧不安이 全혀解消되엿스나 前途樂觀을僥想으로 容易히 買物을 誘發치안는데 休日前同樣으로 依然不撓하얏스든 頑强唱이엇다 丸木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各地當限受渡內容

	石數	價格
大阪	九三〇〇	三三八〇
東京	二一八〇〇	三三八〇
下關	三六〇〇	三三一〇
神戶	三五〇〇	三三一〇

仁川當限受渡內容

仁川當限受渡石數는 一萬一千五百石으로 그價格은 三十一圓九十錢인데 受渡內容은如左하다

◀渡方 [illegible] ◀受方 [illegible]

仁川在米減少

六月二十七日 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 比하야 合格品이 五、三二〇叺의 減少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記와 如하다

◀玄米 (民)三八〇、(政)一七九、五三〇叺 (民)二、二六六叺◀白米 四八八叺 五斗入 三五斗入四〇叺 四斗入 三七一叺 ◀正租

金融 廿九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米穀 廿九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純金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廿九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飴油沖價◆ ◆飴粕沖價◆ ◆카玉期炭◆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廿九日

◆鑑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illegible]

米 東 期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引所 株式 玉 米期 柳來烜商店 仁川府本町 電話 [illegible]

期米 廿九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株 米 光皿 仁川 東益商店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商品 廿九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